

BENRO®

# 아직도 무거운 삼각대만 들고 다니시나요?

삼각대 리뷰전문작가 15명이 극찬한 제품  
2023년 베로 여행용 삼각대 판매율 1위

## 베로 사이언버드 삼각대

깃털처럼 가볍지만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1.08** kg  
헤드포함 무게

베로코리아만의 특별한 기술력의 차이를 느껴보세요.

페이로드  
4.0kg

접은길이  
46cm

최대높이  
155cm

최소높이  
17.7cm

BENRO® Let's go!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 (흥국생명 1호별관, 2층) www.benrokorea.co.kr

제품문의 02-775-6681

한글사지

VOL. 522

# 한글사지

www.pask.net

The Journal of the Photo Artists Society of Korea

한글사지 VOL. 522 January 2024.1

The Journal of the Photo Artists Society of Korea

한글사지 사진회

1 2024 January

# 공모전용 무한잉크 포토프린터

11R= 



- 정품무한잉크**  
잉크병 이미지
- 4x6 2,100장**  
출력가능  
업소자료(L8050, L18050)
- Wifi**  
Wifi 아이콘
- 출력속도 27초**  
(4R기준)  
업소자료(L8050, L18050)

용도	모델명	최대출력크기	정품무한잉크	협회 회원 특가	조건
공모전용	L18050	~ A3w(13inch)	6색 70ml	495,000	용지 5만원 함께 구매시 (용지선택자유)
개인용	L8050	~ A4w(8inch)		345,000	
A3 복합기	L8180	~ A3w(13inch)	6색 흑백특화	609,000	-

**신지 스튜디오클럽은요!** (프린터 구매시 사진관 가격으로 잉크&용지&액자 구매 가능)

<b>포토프린터&amp;정품잉크</b>  사진관 전용 가격 제공 최대 30%할인	<b>원목액자</b>  Natural, Brown 11R=6,600원	<b>사진용지</b>  사진관 전용 가격제공	<b>축제·행사 장비대여</b>  1분 출력 촬영 즉석출력 현장에서 바로
--	--	---	---

## 제62회 한국사진문화상 및 회원표창 추천 공고

사진예술 발전에 헌신한 작가 및 단체의 업적을 기리고 널리 알리기 위해 한국사진문화상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제62회 한국사진문화상 및 회원표창 후보자 추천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분야

- 공로상** : 20년 이상 사단에 헌신한 공적이 현저하거나 업적이 있는 자로서 학술, 교육, 평론, 창작 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 사진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
- 작품상** : 당해 연도 회원전에서 가장 우수한 작품을 출품한 회원. 단 최근 5년간의 작품을 고려한다.
- 출판상** : 우리나라 사진문화 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출판물 (단행본, 작품집, 정기간행물, 기타) 을 저작한 사람 또는 단체. 단, 출판물은 최근 2년 이내 발행분에 한한다.
- 특별공로상** : 사단에 헌신하여 사진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지대한 자
- 발전공로상** : 협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지대한 광역 시·도 지회 및 지부 중 6개 이내의 단체
- 우수회원상** : 지회·지부에서 추천하며 한 해 동안 지회·지부 및 협회 발전을 위하여 공적이 지대한자 (지회·지부장, 임원 추천서 필수)

### 마감일

2024년 1월 17일(수) 협회 도착분에 한함

### 진행절차

- 접수 된 추천서에 대하여 한국사진문화상 제6조에 의거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상자 선정
- 선정된 수상자는 2024 PASK AWARDS에서 시상 예정



개인전

- 제1회 광주 남봉갤러리(99)
- 제2회 무등갤러리(03)
- 제3회 광주시립미술관 서울 인사동 갤러리 LIGHT, 목포문화예술회관, 광주유스퀘어문화관 금호갤러리(2009)
- 제4회 광주유스퀘어문화관 금호갤러리 전관(2012)
- 제5회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2017)
- 제6회 광주광역시 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2021)

초대개인전

- 대한민국미술축전, KBS 특별초대전(02)
- (서울 예술의전당 한마음미술관-마니프초대 02)
- 제1회 서화아트페어전(서울 예술의전당 04)
- 서구문화원 갤러리 6인 초대전(10)
- 현대삼호중공업 한마음갤러리 초대전(10)
- 광주예총 개관기념 초대전(14)
- 갤러리관선재 초대전(22)

경력

- 대한민국미술대전 연2회 특선(91-92)
- 대한민국미술대전 서예부문 초대작가(92)
- 광주광역시미술대전 초대작가
- 전라남도미술대전, 무등미술대전 초대작가
- 초대작가상, 행정자치부 장관상 수상

심사 및 운영

- 대한민국미술대전 서예부문 심사 및 심사위원장(97.02.06.13)
- 광주광역시미술대전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 역임
- 전라남도미술대전, 무등미술대전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 역임
- SBS 국제서법예술연합회대회 심사위원 역임
- 대한민국서예대전, 대구미술대전 심사위원 역임
- 새천년서예대전, 통일미술대전, 경기도미술대전 심사위원 역임
- 제주추사선생회화대회, 대전미술대전, 제주도전 심사위원 역임
- 경상남도미술대전, 경기북부미술대전 심사위원 역임

단체활동

- 연우회원, 향덕서학회원, 한국미협 회원 및 이사 역임
- 한국미협 광주시지회 서예분과 위원장 역임
- 국제서예가협회 부회장, 여목상우 회원
- 한국예총 광주광역시연합회 대의원, 한국서예가협회 회원
- 국제서법예술연합 한국본부 호남지회장 역임

현재 취정서예 연구원장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 181-1 / imcsik1516@hanmail.net

貞吉(정길) 마음이 곧으면 길(吉)하다.

受茲介福 以中正也 (수자개복 이중정야)

큰복을 받는다는 것은 마음이 중정(中正) 하기 때문이다.

周易 普篇句(주역 보편구)

# Contents

January 2024 Vol.522

## Cover Story



**김부연(중구지부) - 갑진년 일출**  
 많은 사건 무수한 자연으로 점철되었던  
 계묘년이 갑진년 희망찬 일출에 자리를  
 내주고 물러간다.  
 매일 떠오르는 태양이지만 이 새해 첫 태양을  
 낚는 바다를 보면 늘 가슴이 벅차오른다.

- 03 **Headnote**  
새해를 맞아 드리는 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유수찬
- 08 **특집**  
2023 서울포토편제  
제8회 대한민국 사진축전 개최
- 54 **전시광고**  
Pearl of the East - Sri Lanka,  
동양의 진주 스리랑카 - 박대병(용인)
- 58 **전시광고**  
마음 다스리는 군자의 음료, 그 멋과 향  
나의 향기, 잊혀 가는 전통 茶禮 문화 - 정금화(강동구)
- 62 **전시광고**  
렌즈로 보는 '순환의 섭리 자연의 얼굴'  
시간의 경계를 중첩하다 - 이기복(수원)
- 64 **전시광고**  
꽃 피워 열매 맺고...이어진 우리 사이  
蓮, 緣(연) - 염미영(수원)
- 66 **전시광고**  
볼 수 없는 것 보여주는 생명의 원천  
얼음 속의 세상 - 김승훈(송파)
- 70 **지상전 01**  
보이는 영역 넘어 마음 속 색채로...  
'현실의 반영과 변형' - 서성강(천안)
- 74 **Photo Essay 01**  
3차원 공간 버리고 2차원 평면 취하다  
Cherish the Time 시간 품은 빛 & 색 - 송재운(광주)



8



54



Headnote

## 새해를 맞아 드리는 글

회원님들 앞에서 무거운 마음으로 협회기를 전달받았던 것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취임 후 첫해가 지나갔습니다. 돌아보면 아쉬운 것도 실수 한 점도 있었지만 꽤 많은 성과를 이루기도 했던 지난 2023년이었습니다.

먼저 정책적인 측면에서 사진 예술인의 숙원인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이 첫 발의 이후 4년 만에 문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남은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한 해 동안 사진 학계와의 교류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장학금 수여 및 사진축전 전시부스 제공 등의 노력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학계의 시선이 많이 변화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더욱 공고한 유대관계를 만들고 국내 사진계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키워가겠습니다.

다음 협회 사업 진행에서 가장 커다란 성과는 제8회 대한민국사진축전을 성공적으로 마친 것입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우려 속에서도 사진계의 유일한 대형 전시를 잘 치루었습니다. 특히 공약으로 약속드렸던 청소년사진제와 스마트폰을 통한 시민 참여영역 확대를 사진축전과 연계하여 상당한 호평을 받았습니다. 또한 상당히 높아진 전시 작품 수준에 많은 관람객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대회 운영에 분명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지만 의견 청취와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다음 대회의 수준을 높이는 계기로 삼을 것입니다.

그 밖에 매년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정기총회, 대한민국사진대전, PASK Awards 등 많은 업무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마쳤고 사진예술아카데미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잘 유지했습니다. 그 원동력은 언제나 커다란 애정으로 협회의 일에 함께 해주신 회원님들 덕분입니다. 새해에는 약속드렸던 것처럼 회원님들을 위한 제도의 보완, 창작활동 독려 프로그램 확대 그리고 협회 회원으로서 자부심이 느껴지는 협회를 만들어 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제30대 집행부는 2024년에도 밝은 내일을 향해 한 발자국 더 나아가겠습니다. 그 여정에 함께해주시기 바라며, 모든 회원님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4년 1월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유수찬

# Contents

January 2024 Vol.522



58



62



78

- 78 **Photo Essay 02**  
물아일체 物我一體 나도 그 풍광이고 싶다  
동해를 품은 독도 - 박용득(구미)
- 82 **Photo Essay 03**  
오늘 내가 죽는 것은 다시 살기 위함이다  
꽃의 언어 The Language of Flowers - 황여정(대전)
- 86 **Review & Preview**  
이자벨 샤푸  
Vivant, Le sacre du corps 신성한 몸 - 김재훈

### 사진강좌

- 92 **Photo Theory**  
중간톤 천연 색상 살리는 묘사력 '탁월'  
오브제를 활용한 카본프린트 프로세스 - 김정현(진주)
- 96 **Travel destination**  
동서고금 휘어잡던 능력 어디갔나  
옹의 퇴진 - 최승언

### 협회소식

- 100 **Society News / Member Plaza**  
협회소식 및 분과위원회 소식  
회원동정 외

### 업계소식

- 106 **Gallery**  
김승훈 개인전 외

**정기구독 1년 10만원**  
계좌 국민은행 031-25-0001-564 예금주 한국사진작가협회  
사무처로 입금 확인하시고 주소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문의·구독 및 배송관련 문의 02-2655-3131**  
웹하드 ID : kpsk / PW : kpsk



## 한국사진

발행인 | 유수찬  
 펴낸곳 |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225 대한민국예술인센터 1701호  
 전화 | 02-2655-3131  
 팩스 | 02-2655-3130  
 URL | http://www.pask.net  
 E-mail | koreapask@daum.net  
 웹하드 | ID : kpsk / PW : kpsk  
 펴낸날 | 2024년 1월 1일  
 등록일 | 2017년 4월 14일 등록번호 양천, 라00087  
 위원장 | 백만중  
 출판팀장 | 손석운  
 출판위원 | 김명옥, 박경서, 이정용, 최영태, 황길연  
 편집장 | 노성진(010-3387-0244)  
 제작 | 도서출판 피알에이드(02-2264-1996)  
 알림 | 회보 「한국사진」에 실린 상업광고와 글은 광고주와 필자의 견해이며, 본 협회나 편집자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투고안내  
 표지 및 내지원고는 편집디자인 중 작가노트 또는 작품원고 일부는 편집과정에서 변경되거나 삭제될 수 있습니다.

## 개선발전위원회를 마치며

제30대 집행부의 공약사항에 따라 출범한 개선발전위원회가 제5차 회의를 끝으로 공식 일정을 마쳤습니다. 위원회는 협회의 향후 미래비전과 현 정관·규정이라는 두 개의 커다란 카테고리 분류하여 다양하고 폭넓은 주제를 치열하게 논의하였고, 그 결과를 협회로 보고 하였습니다.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며 수많은 밤을 고민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 사이에 큰 간극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재정적인 부분이 그러합니다. 예술단체 운영을 위한 직접 지원 단절로 협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자체 해결이 필수이자 숙명입니다. 따라서 수익구조 개선 사업 일환으로 사계권위 기관의 컨설팅을 거쳐 일부 가능한 수단을 확보한 것은 미래 경영의 새로운 전기가 되리라 봅니다.

또한 날로 가중되는 회원 고령화와 회원 수 감소는 협회 미래 발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어 회원 입회자격 조건을 일부 완화하자는 의견입니다. 일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공모전은 온라인 접수와 파일 심사라는 외국에서 많이 활용하는 방식의 도입을 논의하였으나, 시대적 요구에 현실적 어려운 점을 이유로 채택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의 여운이 있습니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 위원회의 논의는 일정 부분 타협이 필요했으며 이상(理想)만을 고집하기엔 불가능한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에 좀 더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없었고,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결론이 났다는 것을 회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남지만 부족한 부분은 미래의 협회를 이끌어 갈 분들이 채워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위원회의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고 시행할지에 대한 부분은 이사회와 회원님들의 결정에 달렸습니다. 협회의 발전과 밝은 미래를 향하는 방법에는 각자의 의견이 다르겠지만, 그래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우리 모두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옳고 그름을 떠나 이번 위원회의 개정안이 다음 60년을 준비하는 시발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원, 근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열과 성을 다해 임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응원해 주신 모든 회원님들에게 커다란 감사를 전합니다. 이제 저희에게 주어진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2023년도 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새해 여러분 가정에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2월 19일

개선발전위원회 위원장 신현하

## 사진예술 아카데미 작가과정 제4기 모집요강

(본 협회 사정에 의해 변경 가능)

### 신청 자격요건

1. 비회원의 경우 : 본 협회 입회를 희망하는 자
2. 회원의 경우 : 사진전문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자

### 모집인원

50명 이내(선착순 마감)

### 교육과정 (학기제 수업 1·2학기제 1년 과정)

: 학기제 수업, 1·2학기제 1년 과정, 대면 및 온라인 강의 진행

: 1학기, 2학기 과목은 최종 교육과목 조율에 따른 결정 후 본 협회 홈페이지 공지예정

수강기간 (단, 협회 상황에 따라 개강 및 종강일자는 변경될 수 있음)

1학기 개강 3월 22일(금) ~ 7월 5일(금) (단, 본 협회 긴급 행사 시 변경될 수 있음)

2학기 개강 8월 23일(금) ~ 12월 6일(금)(마지막 수업)

졸업전시회 12월 11일 ~ 17일

(12월 10일\_설치 / 11일\_개전식 및 수료식 / 17일\_철수)

### 수강방법 및 수료조건

사진예술 아카데미 강의실 대면 또는 비대면 수업 진행

졸업작품전시 필수 참여

출석 80%이상 참여

학기별 수강료 : 1학기당 일금 3,000,000원 (2학기 총 6,000,000원)  
카드납부 가능

입금계좌 : 국민은행 878301-01-289114, 예금주 : 한국사진작가협회

입금기한 : 2024년 3월 21일까지

### 사진예술 아카데미 작가과정 제4기 강의장소 안내

#### 이론수업

1. 목동, 예술인화관 9층 강의실(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225)
2. 대전, 대전예술가의 집 정문 맞은편 건물 4층 강의실(2학기 크리틱 진행)

#### 실습수업

1. 하남, 원스튜디오(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서로16 하우스스튜디오트빌리)
2. 익산, 그라포스사진교육원(전라북도 익산시 약촌로 174)
3. 계원예술대학교 사진학과 종합암실(경기도 의왕시 계원대학로 66)
4. 서울, 258lab 스튜디오(서울 용산구 한남동 독서당로70)
5. 출사.(상황에 따라 조율)

이론수업 시 부득이 대면 참여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온라인 수업 병행(zoom)

모든 강의 종료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재수강 가능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사진예술 아카데미 사진작가과정 제4기

The PASK Master Course of  
Photography Art 4th

## 제1회 PASK 국제 사진 공모전

# KOREA PASK 2024

2024년 우리 협회가 주최하는 국제사진공모전이 개최됩니다. 제30대 집행부의 공약사항 중 하나였던 국제사진공모전 개최라는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기쁜 마음입니다. 첫 단추가 잘 채워질 수 있도록 이사장님 이하 모든 임직원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국제사진공모전은 FIAP(국제사진예술연맹), GPU(국제사진연합), IAAP(국제예술사진가협회) 총 3개 기구의 인준을 받은 대회로서 연령, 지역, 인종에 관계없이 누구나 출품할 수 있는 사진예술의 장이 될 것입니다.

### 응모분야

#### (5개 분야)

- 1) Open Color(컬러 부문)
- 2) Open Monochrome(흑백 부문)
- 3) Nature(자연 사진 부문)
- 4) Photo travel(여행 사진 부문)
- 5) Portrait, Life(인물, 생활 사진 부문)

출품작품수 각 부문당 4점씩 총 20 작품 출품 가능(기존의 수상작 출품 가능)

작품규격 가로 1,920픽셀 이하, 세로 1,080픽셀 이하, sRGB, 300dpi, 2M 이하

출품료 외국인(30\$, Paypal로 입금), 한국인(40,000원 국내은행 입금, 또는 페이팔로 30\$ 결제)

수상내역 각 분야 별로 금, 은, 동, 가작 등등 모두 180 작품의 입상 + 최고급 삼각대 2세트

### 공모전 시간표

작품 접수 마감 2024년 3월 10일

심사일시 2024년 3월 13 ~ 27일 (온라인 심사)

결과 발표 & Report Card 발송 2024년 3월 31일

작품 전시 2024년 12월 4일~ 12월 8일

### 국제적인 사진 단체에서 승인

FIAP(2024/118) : 국제사진예술연맹(Federation International Art Photographic)

GPU(L240010) : 국제사진연합(Global Photographic Union)

IAAP(2024/009) : 국제예술사진가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Art Photographers)

PASK(2024/001) : 한국사진작가협회(The Photo Artist Society of Korea)

### 대회 특징

- 파일로 접수하고 온라인 심사로 진행합니다.
- 국제사진기구의 규정에 따라 기 발표작 및 수상작의 출품이 가능합니다.
- 1인당 5개 분야에 4점까지 출품이 가능하기에 총 20점까지 출품할 수 있습니다.
- 심사가 완료되면 각자의 이메일로 Report Card(개인별 점수표)가 발송됩니다.
- 작품집은 PDF파일로 제작하여 온라인으로 배포합니다.

### 수상자 특전

- 내국인의 경우 협회 규정에 따라 입회점수 혹은 200점 심사자격자 점수가 부여됩니다.
- 해당 국제공모전 작가신청 점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 국제공모전에 출품하시는 경우 접수 방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협회 홈페이지에 접수 방법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업로드 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제공모전 규정에 정하고 있는 분야별 금지사항 및 주요 규칙을 정리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할 것입니다. 많은 회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 PASK 국제사진공모전 운영위원장 김시묵

상세 내용 및 출품요령은 협회 홈페이지 참조

작품접수 사이트 : <https://theiaap.com/e/pask/>



제 8회 대한민국사진축전 개전식



테이프커팅을 하는 유수찬 이사장과 행사에 참석한 외빈, 내빈들



개전식 선언 후 인사말을 하는 유수찬 이사장

식전 행사로 오후 2시 30분부터 가수과 밴드 합주를 연주하여 축제 분위기를 한껏 돋우었다.

먼저 이번 대회 조직위원장이인 한국사진작가협회 유수찬 이사장이 "지금부터 2023 대한민국 사진대전 개전식을 시작하겠습니다"라고 전시 개전 선언을 했다.

이어서 김시목 부이사장이 내외빈을 소개했다. 1만 명 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을 대표하고 있는 유수찬 이사장을 소개한 이후,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이범헌 회장, 한국예총 김두영 감사, 한국언론인협회 성대섭 회장, KNS뉴스통신 정경택 회장, 한국애니메이션예술인협회 강명구 회장, 더불어민주당 민영우 운영수석위원, 계원예술대 사진예술학과 정명오 학과장, 중부대학교 안시준 교수, 신구대 사진영상학과 김효식 교수, 한국사진방송 김가중 대표가 외빈으로 소개되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전성수 서초구청장이 축하하기를, 이철구 한국음악협회 이사장, 국민의힘 김석기 최고위원이 축전과 화분을 보내 이번 제8회 대한민국사진축전 개전을 축하했다.

행사장 전경 촬영

## 2023 서울포토편스티벌 제8회 대한민국 사진축전 개최

사진인 대거 참석, 여야 정치인 영상메시지 '눈길'

글 김이배(홍보위원회 위원장), 사진 오건호(홍보위원회 위원, 보도사진분과위원회 부위원장)

지난 6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양재aT센터 제1전시장에서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이사장 유수찬)은 대한민국 최대 이자 서울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사진문화예술 향응을 함께하는 사진예술 전시인 2023 서울포토편스티벌 - 제8회 대한민국 사진축전(8th PASK KOREA PHOTO FESTA)을 박지원 아나운서의 사회로 개최했다.





이후 내빈 소개로 본 협회 최차열 부이사장, 선종백 부이사장, 백만중 부이사장, 이항룡 부이사장, 이덕만 본부 감사, 공병철 본부 감사, 조건수 고문, 김양평 고문, 신현하 운영자문위원회 위원장, 문제민 교육전문위원회 위원장, 심재안 장학기금관리위원장, 이석무 촬영지도위원회 위원장, 홍창일 전임 부이사장, 서규원 전임 부이사장, 강부만 전임 부이사장, 김종택 전임 부이사장, 성상경 전임 부이사장, 정건영 전임 부이사장, 특별 초대전 박옥수 60년사 편찬위원장 소개가 이어졌다.

유수찬 이사장은 "이번 대회는 2023년 서울시 민간 축제 지원 및 육성 사업으로 선정된 '서울포토편제'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사진예술과 문화에 지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오세훈 서울시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쁜 일정에도 이번 전시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외부계도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합니다.

이번 전시에는 70년도의 서울을 담아낸 박옥수 작가님의 특별전부터 중견 사진작가, 그리고 사진 전공하는 학부생의 작품까지 폭넓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시민들과 초종교 학생들의 사진 공모를 통해 선정된 수상작 전시도 진행하며 누구나 사진예술의 창작자인 동시에 관람객으로 함께할 수 있는 사진예술 축제를 준비했습니다. 누구나 사진을 찍고 올리며 감상하는 시대입니다. 거장의 역사적인 명작도 스마트폰으로 가볍게 찍은 셀카도 결국은 모두 사진입니다. 모두에게 익숙한 사진이라는 매개를 통해 일상 속의 문화 예술 경험이 확대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 협회와 사진인의 숙명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분의 평범한 하루에 사진을 통한 즐거움이 함께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작품을 마음껏 감상하고 즐기시기 바랍니다"라고 인사말을 했다.



특별전 - 숲속에 길을 묻다 작품을 감상하는 유수찬 이사장과 내외빈들



홍익대 대학원 부스 관람

행사장 전경 촬영



개전식장 전경 모습





축사를 하는 조건수 고문



축사를 하는 김양평 고문



축사를 하는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이범헌 회장



개전식 참여한 외빈과 내빈에게 인사를 하는 유수찬 이사장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영상에서 “제8회 대한민국 사진축전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이번 전시를 준비해 주신 한국사진작가협회 유수찬 이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진축전은 서울시 모든 시민께도 환영받을 행사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최대 사진전 시인 대한민국 사진축전이 서초구에서 개최하게 되어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사진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시선을 제공하고 깊은 감동을 전달합니다.

사진을 통해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시민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축전에는 유수찬 이사장님의 특별전과 작가 150분

의 작품과 시민들의 일상사진 공모전도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이, 순간의 이야기가 오늘의 축전이 모두가 함께 즐기는 보다 풍성한 축제가 되기를 기원하며 다시 한번 제8회 대한민국 사진축전 개최를 축하드리며 참여하신 모든 작가들의 멋진 활동을 응원합니다”라고 축사했다.

김관영 전라북도지사는 영상에서 “제8회 대한민국 사진축전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 사진축전은 국내 최대의 사진예술 전시회로 사진예술의 대중화에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 전시회는 새만금 잼버리 특별전이 마련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

에도 도전과 열정을 담았던 대원들의 모습에서 뉴스에서는 미처 다루지 못했던 잼버리의 다양한 모습을 사진으로 생생하게 만나보시기를 기대합니다. 잼버리 현장을 담아주신 작가 여러분, 그리고 이번 행사를 준비하신 한국사진작가협회 유수찬 이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사진축전의 성공과 더 큰 발전을 기원드립니다”라고 축사했다.

국민의힘 김석기 최고위원의 축사를 박지원 아나운서가 대독했다. “먼저 대한민국 최대 사진예술 전시인 제8회 대한민국 사진축전이 많은 내외 귀빈들을 모시고 성대하게 개최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국회 일정으로 인해 함께하지 못하고 축전으로 대신함을 널리 해량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의 행사를 준비하느라 수고해 주신 한국사진작가협회 유수찬 이사장님을 비롯한 많은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곳 전시회를 통해 자신만의 수단으로 세상을 담은 150여 명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하며 흘러 돌아가는 시간의 감탄에서 경이로움을 많은 분들께서 함께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라고 축사했다.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이범헌 회장은 “제8회 대한민국 사진축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유수찬 이사장님과 부이사장단의 노고에 인사를 크게 드립니다. 한국예총에서도 한국사진작가협회의 중추적 역할과 선도적 역할이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김양평 이사장이 수석 부회장으로 협회 발전에 기여하시고, 조건수 이사장님 역시 현재 감사로 사진작가협회가 한국예총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수찬 이사장님 이후에 오늘 개최되는 사진축전이 대한민국의 사진축제로서 가장 대표적인 권위 있는 그리고 또 위상을 높여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라고 축사했다.

조건수 고문은 “저희가 이 일을 시작할 때 굉장히 막대한 예산 문제로 그 당시 저와 함께했던 김양평 이사장이나 유수찬 현 이사장님이 처장으로 계시는 때 밤을 새면서 고심했습니다. ‘이게 가능할 것이냐, 이게 될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계획하고 준비했습니다. 전시장 때문에 밤 네 시까지 고심하며 이 행사를 시작했는데 벌써 이렇게 크게 성장해서 한국사진전을 대표할 만한 축제로 발전했습니다. 그 동안 모든 분들의 노고와 열정이 함께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발전하고 더욱 더 자랑스러운 사진축전으로 변창하고 크게 성공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라고 축사했다.



식전 공연

김양평 고문은 “한국사진작가협회가 이만큼 발전한 데 대해서 정말 격려의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건실하고 또 열정적인 유수찬 이사장님께 큰 박수로 축하드립니다. 사진축전은 일이 많습니다. 그간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성대하게 전시할 수도록,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또한 청소년 및 일상사진 공모전 및 참여부들을 전시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라고 축사했다.

제8회 대한민국 사진축전 개막을 알리는 테이프 커팅과 단체 사진을 촬영했다. 이어서 내빈과 관람객들은 전시된 사진을 감상했다.



제8회 대한민국사진축전 리뷰

# 민관협력으로 K-포토 시대 열었다 2023 서울포토편스티벌

글 정명오(계원예술대학교 사진예술과 학과장, 교수)

2023 서울포토편스티벌 - 제8회 대한민국 사진축전이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양재 at센터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2023 서울포토편스티벌은 국내 최대의 사진행사로서 사진인과 시민들이 함께 즐기는 축제의 한마당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의미 있는 행사를 주최한 (사)한국사진작가협회와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 서울시의 지원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대한민국 사진축전은 한국사진작가협회의 각 지역을 대표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150여 명의 사진가들이 축전에 참여하였고, 다양한 표현 방식의 작품을 관객들과 공유하며 작업의 성과를 점검해 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출품작들의 경향을 보면 디지털 도구와 기능에 의한 표현 효과에 비중을 두는 작업이 상대적으로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1990

년대 초 무렵부터 한국 사진인들 사이에서 taking picture와 making picture에 대한 토론이 있었으나 사진예술에 있어서 어느 쪽이 정답이냐는 논란은 큰 의미가 없다. 예술작업은 작가의 취향으로 시작되며 작품의 접근방법은 결과로써 인정받게 되면 좋은 방식이 된다. 다만 한국 사진계를 대표하는 사협 회원들의 사진에서는 자신만의 결정적 순간과 camera eye를 추구하는 작업의식으로 사진에 대한 열정이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

이번 특별전 중 "시간여행-서울 1970" 특별전은 '기억을 기록'하는 사진의 본질을 보여주는 작업으로 잊혀가는 서울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50년 후의 지금에 재인식하게 하는 의미 있는 전시이다. 또한



청소년사진제 수상작 부스 앞 기념촬영하는 유수찬 이사장(사진 맨 왼쪽), 정명오 교수(사진 맨 왼쪽 두 번째)와 내외빈들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잰버리대회를 소재로 한 사진전은 세계의 젊은이들이 우정과 사랑과 잰버리 정신으로 하나 되는 휴먼스토리로 관람객들에게 희망과 감동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다. 사진학과 교류전에는 4개의 대학이 참여했는데 대학에서 사진을 배우는 학생들이 2023 서울포토편스티벌에 참여해서 현장감을 체험해 보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한국사진작가협회 작가들과 젊은 학생들은 서로의 작품으로 주제나 형식을 비교해 보며 소통하는 배움의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내년에는 사진학과 교류전이 확대되어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게 된다면, 사진축전에 대한 관심과 시너지 효과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전 중 '청소년 사진제 수상작' 전시는 매우 주목해야 할 전시이다. 지금은 폰카와 디카의 발전으로 세계인의 대다수가 촬영을 즐기며 사진이 언어를 초월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는 시대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사진 전공자와 상업 사진가의 영역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반해 사진으로 일상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문화는 어른들은 물론 어린 청소년들 사이에도 더욱 확장되고 있다. 미술이나 음악과 같이 사진은 어린 학생들의 정서와 감성 개발에 좋은 영향

을 주는 유용한 예술도구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초, 중, 고 교육과정에도 사진과목의 도입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번 사진 축전에서 '청소년 사진제'를 개최한 것은 시대상황과 국민 의식을 선도하는 매우 의미 있는 행사라고 본다. 또한 출품된 청소년들의 작품도 수준 높은 사진이 많았기에 차기 사진 축전에는 수상작 수와 부스규모도 확대하여 청소년들의 사진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더욱 커지기를 바란다.

한국사진작가협회는 매년 전국적으로 사진예술 아카데미, 사진공모전과 전시, 세미나와 촬영대회, 포토편스티벌, 사진 재능기부 등 사진예술 발전과 저변 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은 무엇보다 우리나라 사진예술 발전 및 공헌에 큰 원동력이 된다. 세계적으로 K-pop의 열풍이 K-food, K-culture로 이어지고 있는바 예술성과 실용성을 고루 갖춘 '사진'이 민관의 협력으로 한국 사진문화예술 발전의 중심축이 되어 전 세계가 주목하는 K-photography로 확장하기를 기대한다.



특별전 부스에서 유수찬 이사장과 기념촬영하는 내외빈들



청소년사진제 수상작 작품을 설명하는 유수찬 이사장

개전시 이후 특별전 부스를 관람하는 유수찬 이사장과 내외빈들

제8회 대한민국사진축전 시상식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장학금 수여식



수상자들 및 워빈, 내빈과 단체 기념촬영하는 유수찬 이사장



축사를 하는 계원예술대학교 정영오 교수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장학금 수여식 인사말을 하는 유수찬 이사장



축사를 하는 중부대학교 안시준 교수



본 협회 장학금 수여식 인사말을 하는 심재안 장학기금관리위원장



축사를 하는 인천재능대학교 유희영 교수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장학금 수여식장 전경모습



장학금 수여 후 기념촬영, 김종택 전 부이사장(사진 맨 오른쪽 세 번째)



장학금 수여 후 기념촬영, 심재안 장학기금관리위원장(사진 맨 오른쪽 두 번째)



장학금 수여 후 기념촬영, 최성용 이사(사진 맨 오른쪽 두 번째)



장학금 수여 후 기념촬영을 하는 유수찬 이사장





제 8회 대한민국사진축전 시상식  
서울시 일상사진공모전



상장 수여 후 기념촬영, 김석원 운영자문위원회(사진 맨 오른쪽 두 번째)



상장 수여 후 기념촬영, 서성강 운영자문위원회 부위원장(사진 맨 오른쪽 두 번째)



상장 수여 후 기념촬영, 문제민 교육전문위원회 위원장(사진 맨 오른쪽 두 번째)



상장 수여 후 기념촬영, 손석윤 이사(사진 맨 왼쪽)



대상 수상자 상장 수여 후 기념촬영하는 우수찬 이사장

수상자들과 단체 기념촬영하는 우수찬 이사장



제 8회 대한민국사진축전 시상식  
청소년사진제 공모전



청소년사진제 시상식 인사말을 하는 우수찬 이사장



상장 수여 후 기념촬영, 배택수 상임이사(사진 맨 오른쪽 두 번째)



상장 수여 후 기념촬영, 박인호 이사(사진 가운데)



상장 수여 후 기념촬영, 김현호 인물사진분과 위원장(사진 맨 오른쪽 두 번째)



상장 수여 후 기념촬영, 신경애 이사(사진 맨 오른쪽 두 번째)



상장 수여 후 기념촬영, 손석윤 이사(사진 가운데)



상장 수여 후 기념촬영하는 우수찬 이사장



대상 수상자 상장 수여 후 기념촬영하는 우수찬 이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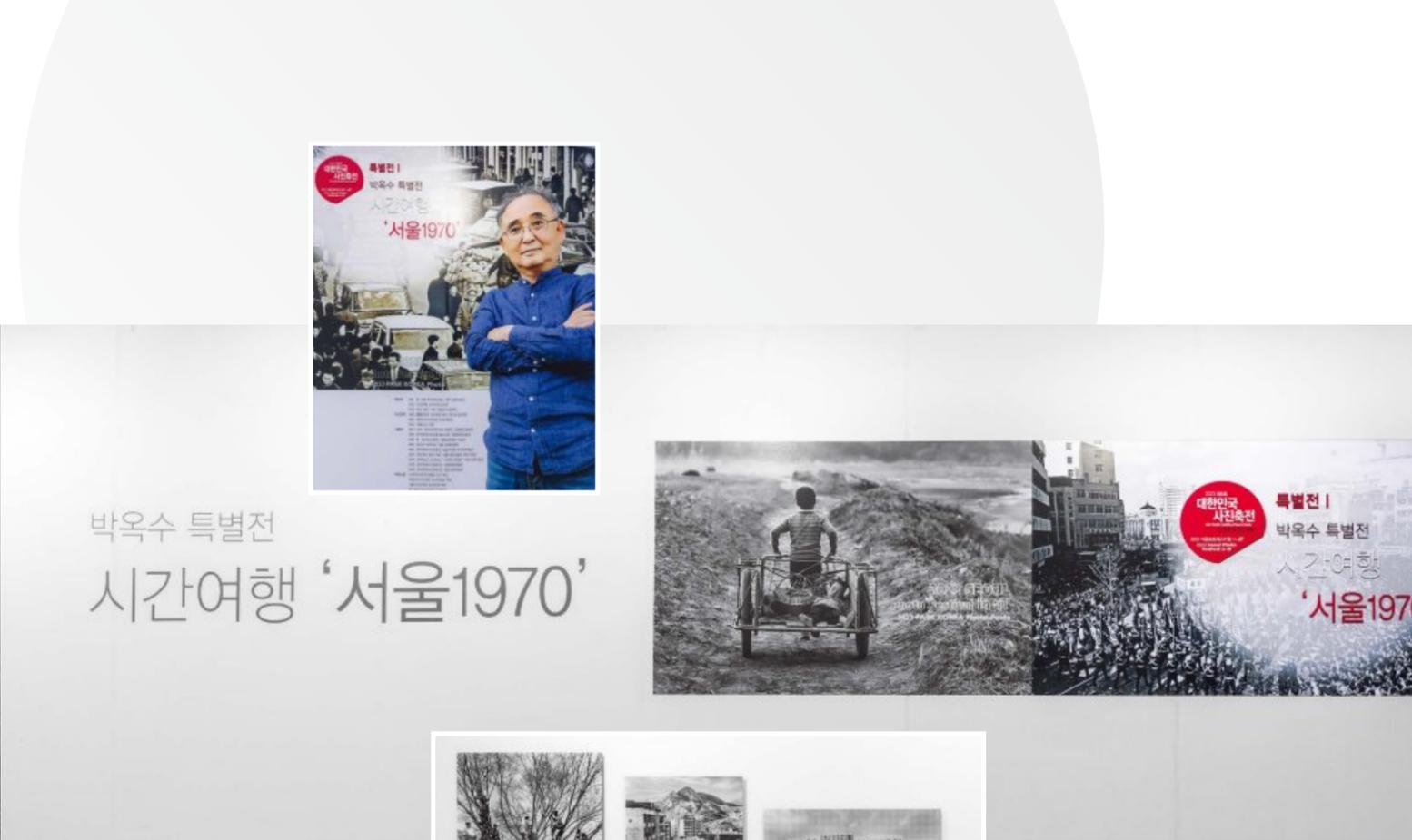
최우수상 수상자 상장 수여 후 기념촬영하는 우수찬 이사장



상장 수여 후 기념촬영, 문제민 교육전문위원회 위원장(사진 맨 오른쪽 두 번째)

수상자들과 단체 기념촬영하는 우수찬 이사장





흑백사진에 남겨진 흔적 속에는 1970년의 서울과 그 시기를 살아온 사람들이 머물러 있다. 개발되지 않은 서울과 그날의 하루를 치열하게 살았던 시민들의 모습은 누군가에게 추억의 편린이며, 또 다른 누군가에게 말로만 들어봤던 낯설일 것이다. 사진은 기억을 기록한다. 박옥수 작가가 간직했던 50년 전의 역사적인 기록을 눈과 마음에 담아가는 의미 있는 시간여행을 관람한 계기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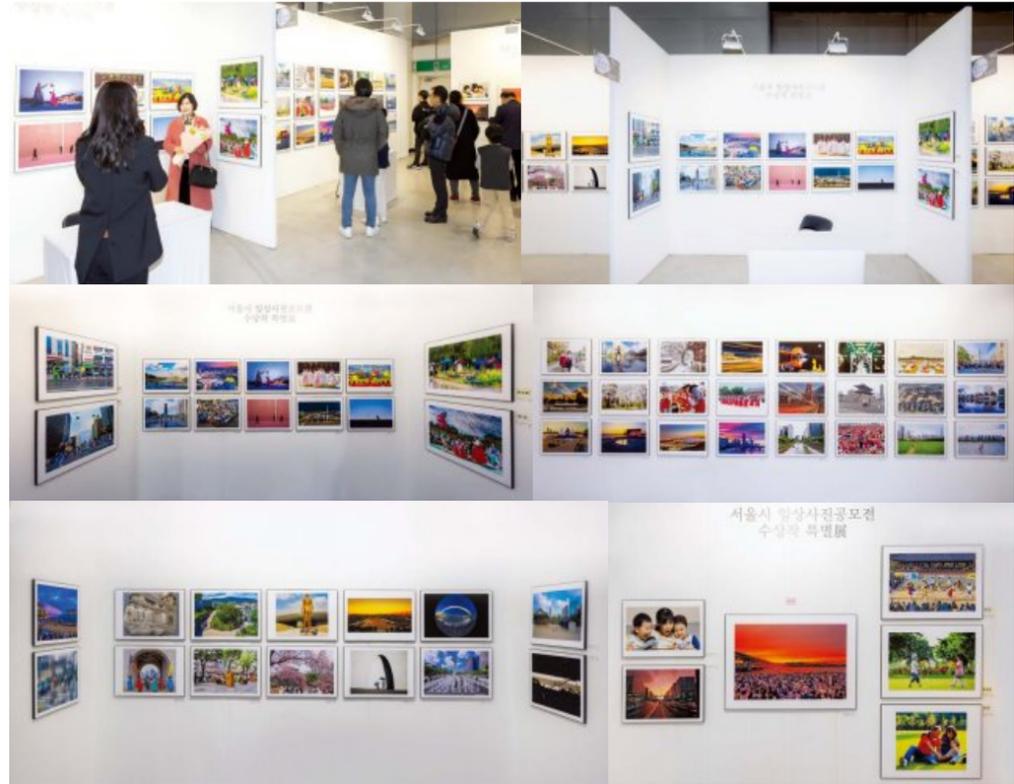




제 8회 대한민국사진축전 특별전 II

서울시 일상 사진 공모전, 청소년 사진제 수상작 전시

서울시 일상 사진 공모전, 청소년 사진제 수상작 전시- 누구나 스마트폰의 카메라로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진을 찍는다. 전문 사진작가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멋진 사진을 찍고 공유하며 즐길 수 있다. 2023년의 사진예술은 시민이 문화 콘텐츠의 소비자인 동시에 생산자로서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참여 확대의 하나로 진행된 서울포토페스티벌 세부 프로그램인 서울시 일상 사진 공모전과 청소년 사진제는 모두에게 익숙한 스마트폰 사진을 공모한 대회다. 주변의 평범한 친구와 지인들이 촬영한 사진을 감상하는 시간을 통해 사진예술의 즐거움을 더욱 높여주었다.



서울시 일상사진공모전 수상작 특별전 부스



청소년사진제 부수 및 수상자들 기념촬영 모습





계원예술대학교 부스 앞 기념촬영



홍익대학교 대학원 부스 앞 기념촬영



신구대학교 부스 앞 기념촬영

사진의 시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사진 전공자의 숫자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사진예술의 성장과 확대를 위해서는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젊은 재능인에게 기회를 주고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어야 하기에 이번 교류전을 마련했다. 홍익대 대학원, 중부대, 신구대, 계원예대 총 4개 학교 사진학과 교류전 전시를 통해 젊은 예술인의 색다른 시각을 느끼고 앞으로의 사진예술을 이끌어 나갈 사진예술의 미래를 성장시키는 자리가 되었다.

중부대학교 부스 앞 기념촬영



이번 행사 전시 기간은 2023년 12월 6일(수)부터 12월 10일(일)까지였으며, 전시예술로서 사진예술의 매력을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진행되었으며, 대한민국사진축전 조직위원회 주최, 서울특별시·문화체육관광부·전라북도·한국예총 후원으로 진행되었다.



제 8회 대한민국사진축전 특별전 IV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특별전



올여름 개최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행사에 대하여 여러 가지 논쟁을 하는 동안 정작 주인공인 참가자들에 대해선 잊어버렸다. 이번 특별전을 통해 열악하고 어려운 조건에서도 열정과 우애를 나누며 미소를 잃지 않은 대원들의 모습을 담아낸 사진이다. 행사 동안 동고 동락하며 함께했던 작가들의 기록을 통해 뉴스에선 볼 수 없었던 진짜 잼버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대원들 스스로가 미래를 만들어 가며 꿈을 현실로 이루는 장면을 감상할 수 있었다.





숲속에 길을 묻다  
 You Su Chan



유수찬-숲속에 길을 묻다 전시부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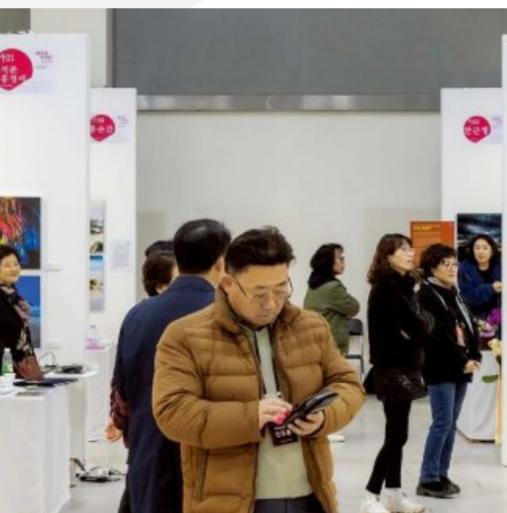
제 8회 대한민국사진축전  
참여 작가 부스전

150여 명의 작가들이 참여한 개인부스 작품을 감상할 수 있었다.  
다양한 시도와 창작 방법을 선보인 작품들이 한국사진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사진 한류가 이제 출발점에서 달려 나갔다는 평을 내릴만 한 전시였다.





제 8회 대한민국사진축전  
참여 작가 부스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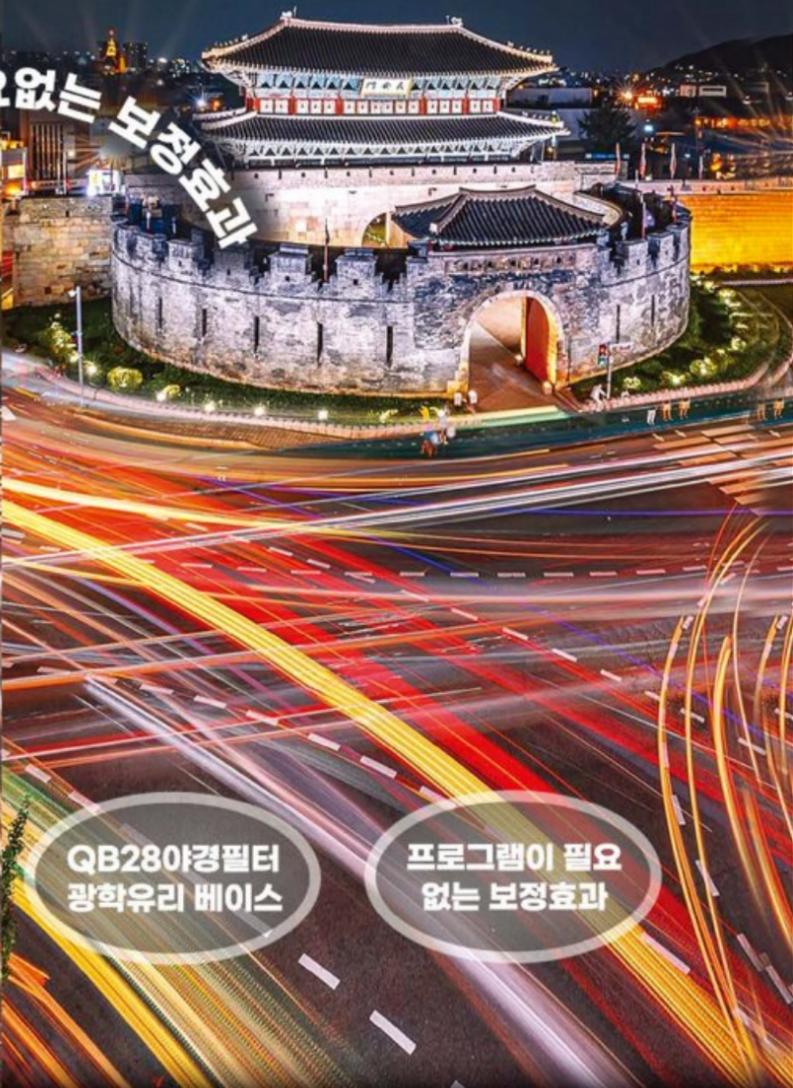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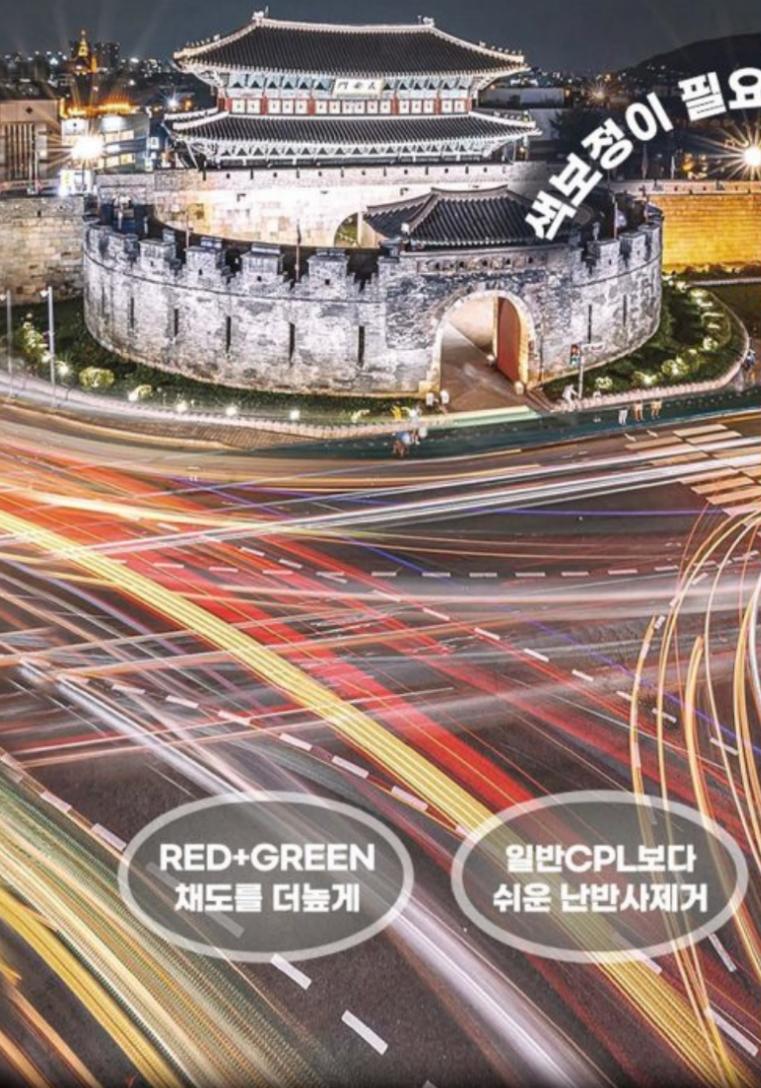


# 세계최초 신개념 필터 개발 브라이트 CPL

세상에 없던 풍경사진 최적화 자석 필터

일반 CPL

브라이트 CPL



보정이 필요없는 보정효과

RED+GREEN  
채도를 더높게

일반CPL보다  
쉬운 난반사제거

QB28야경필터  
광학유리 베이스

프로그램이 필요  
없는 보정효과

BENRO PREMIUM MAGNETIC FILTER

# 마그네틱 필터의 탑클래스 벤로 자석필터 시리즈



사진: 탐험가\_@withkhyun (석현)/ 스위스, 마테호른

2x  
MAGNETIC  
POWER

타사대비  
2배이상 자력

NANO  
WMC

발유,발수  
오염방지 코팅

HD  
OPTICAL  
TECH

최상등급  
광학기술

UV/IR  
CUT

자외선, 적외선  
완벽 차단

ULTRA  
SLIM  
FRAME

울트라 슬림  
필터 프레임



# 멀티 플렉스 여행용 삼각대 벤로CYAN BIRD 사이언버드

2023년 여행용 삼각대에 돌풍을 일으킨 벤로사이언버드 삼각대를 소개한다.

코로나 시즌이 끝나고 2023년 중후반 시즌부터 본격적인 여행의 시국으로 접어든 요즘, 우리 아마추어부터 전문 사진 작가들까지 태깅 풀지 못한 속제가 있었다. 여행을 떠나기 전 어떤 카메라와 렌즈를 들고 갈 것인지와 어떤 삼각대를 선택할지가 바로 그것이다. 당연히 여행지에는 가벼운 미러리스 카메라와 가벼운 광각 단 렌즈 하나면 선택은 끝이지만 삼각대는? 바로 그 고민을 벤로 사이언버드 삼각대가 한방에 해결해 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급스러운 사이언컬러와 블랙의 조화와 뛰어난 감각의 디자인은 젊은층 부터 중견작가님들까지 모두를 만족시켜 누구나 살수 밖에 없는 여행용삼각대 1위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 세계최초 볼 + 유압 헤드 시스템

사이언버드 헤드는 세계최초 볼 + 유압헤드 시스템을 채택하여 사진과 영상촬영까지 자유롭고 안정적인 촬영이 가능하게 한다. 헤드의 하단에 위치한 볼헤드는 노보플렉스 스타일의 역방향 볼헤드를 채택하여 일반 동일사이즈 볼헤드 대비 1.5배 이상의 페이로드를 지원한다. 탈부착이 가능한 미니 팬바로 미러리스급의 바디로 영상 촬영시 자연스럽게 부드러운 패닝, 틸팅촬영이 가능하다. 그리고 간단한 센터컬럼 분해로 로우촬영은 기본, 삼각대 허브에는 각종 연장 홀에 추가 악세사리 장착까지 가능하다.



5.8 cm  
접었을 때 지름

## 캔음료 처럼 착 감기는 그립감

벤로 사이언버드 삼각대(카본)다리는 1kg 남짓의 가벼운 무게와 다리를 접었을 때 외경이 5.8cm로 (250mm 음료캔의 그립감) 휴대성까지 겸비한 근본부터 여행과 포터블에 최적화된 삼각대이다.

## 3STYLE TYPE CYAN BIRD

벤로 사이언버드 삼각대는 카본-멀티플레이어, 알루미늄-가성비, 하이브리드-사진전용 3가지 스타일로 기호에 맞게 선택이 가능하다.



**A** TCBA15FS20PRO  
멀티헤드 + 알루미늄 삼각대

TCBC15FS20PRO  
멀티헤드 + 카본 삼각대



**H** TCBH15N00P  
볼 헤드 + 하이브리드 삼각대  
(최상단 카본 + 4단 알루미늄)



**ISDT**

# 소니 카메라 배터리용 초고속 충전기



# ISDT NP2

# 90분

## QC 3.0 고속충전

\* 고속충전시, 충전시간은 충전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배터리 3종류 대응

NP-FZ100, NP-FW50, NP-BX1, 3종 배터리 충전이 가능한 멀티포트



## 컬러 LCD 모니터

충전 상태를 상세하게 표시하는 컬러 LCD 모니터 탑재

# PHOTOCLAM

PHOTOCLAM

## PTC-1645M WR



초고탄성 카본 방수 삼각대

Haida

## 하이다 마그네틱 필터



자석으로 빠르고 쉽게 결합하는 필터

F-stop

## 듀라 다이아몬드 백팩



틸로파 50L 백팩 아즈나 37L 백팩  
듀라 다이아몬드 듀라 다이아몬드

CAVER

## BV-65



영상용 카본 삼각대  
유압식 비디오 헤드

CAVIX

## PH-720A



720° 파노라마 짐벌 헤드

SUNWAYFOTO

## CR-3015A



360° VR 파노라마 헤드

df DIGITALFOTO

## 타노스 SE



원핸드 짐벌 서포트 시스템 하네스

MOZA

## SLYPOD PRO



가볍고 무빙이 안정적인  
전동 슬라이더 모노포드

ISDT

## NP2 스마트 충전기



듀얼 스마트 고속 충전기  
NP-FZ100 / NP-FW50 / NP-BX1  
충전 가능

PGYTECH  
**OneMo2**

**All-in-one Camera Backpack**  
Powerful enough to be used everywhere



QR 코드 스캔하고  
자세한 정보 확인 하기

PGYTECH  
**OneGo Air**

**Lighter, But Mightier Backpack**  
Stylish for professionals, Whenever wherever



QR 코드 스캔하고  
자세한 정보 확인 하기

PGYTECH  
**Tech Pouch**

**One Smart Organization**  
Clamshell Opening for Organize it whatever you need



QR 코드 스캔하고  
자세한 정보 확인 하기

PGYTECH  
**OneGo Solo**

**Functional Layout, Sling Bag**  
Stylish for professionals, Whenever wherever



QR 코드 스캔하고  
자세한 정보 확인 하기



OneMo2 25L

OneMo2 35L



OneGo Air 20L

OneGo Air 25L



Grey

Black

Green



3L

6L

10L

# 대한민국 사진축전

-지회·지부 회원전 및  
사진작품전 대행  
출력, 접수, 액자제작까지

## Artluxe® 총판

아트룩스는 첨단 소재 기업 존스미디어(주)의  
고품격 디지털 프린팅 솔루션으로 구성된  
혁신적이고 고급스러운 기능으로  
더욱 우아하고 다양하게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토탈 프리미엄 (실내,실외) 자외선/습기에 강한  
갤러리 전시액자, 사진출력 및 광고 포토패널 시스템입니다.



### 출력 전시계획-

### 아트룩스™



Artluxe CRYSTAL CLASSE 크리스탈클래스  
고광택을 유지하면서 조명반사를 줄여  
작품의 선명함을 한층 높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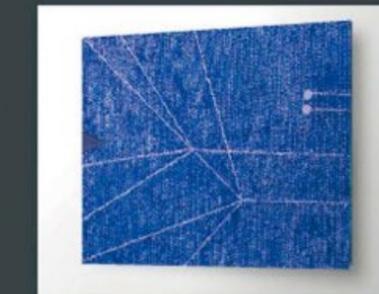
Artluxe CRYSTAL ART 크리스탈아트  
아크릴보다 진한 고광택으로  
작품의 선명함을 한층 높입니다.



Artluxe CHROME 크롬  
실버색상의 메탈릭한 느낌으로  
작품에 차원이 다른 표현이 가능합니다.



Artluxe SUREVUE 시어뷰  
광택과 조명반사를 없애고  
작품의 선명도와 집중도를 높여  
품격있는 표현이 가능합니다.



Artluxe CANVAS 캔버스  
유화그림 같은 느낌으로  
작품의 선명함을 한층 높입니다.



Artluxe PEBRICK 페브리크  
모래알같은 잔잔한 표면으로 작품에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 한사전, 시도전, 사진축전, 갤러리, 야외전시작품 제작 대행 예약받습니다 -

\* 작품 보정작업도 가능합니다. 파일전송(이메일) : bebe9006@naver.com \*

Artluxe®  
프리미엄 포토패널 총판

Tel : 02-2653-9007

Mobile : 010-4610-9007

[ 한국사진작가협회 홈페이지 www.pask.net 배너광고, 월간 한국사진 광고 중 ]

FEEL YOUR SPACE  
TOTAL PREMIUM PHOTO PANEL SYSTEM

사진작가의 입문 두진아트와 함께...

# 전국 사진 공모전 접수대행

공모전 사진인화 (단순인화) 11R-11x14인치 = 3,300원 (장당)

공모전 사진인화 (정밀보정) 11R-11x14인치 = 4,400원(장당)

한국사진대전 33,000원

(사진인화+매트(흰색&검정)+배접(휘거나 뒤플림 변형이 없는 포맥스 8R-8x10 사진포함)

참조: 휘거나 뒤플림이 심한 저가 우드락 배접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도지회 지부 사진대전 사진인화 16R-16x20 인치 = 9,900원

16R-16x24 인치 = 11,000원

20R-20x24 인치 = 12,100원

20R-20x30 인치 = 13,200원

공모료 접수비 별도

박스포장, 택배비: 5,000원 별도

지부봉사 장수사진 액자 제작+인화+코팅 11R-11x14인치 = 보급형. 12,000원

고급형. 16,000원



두진아트 공모전 쇼핑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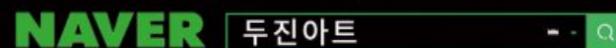
두진아트 전시액자 쇼핑물



두진액자 인터넷 쇼핑물

제품사양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PC 인터넷 . www.dujinart.com / MO 모바일 m.dujinart.com



# 사진전시실적 업계 1위

궁극의 사진표현력, 미세한 디테일까지...

두진아트만의 미디어별 정밀보정 프로파일 적용

이것이 진정한 아트다!

**1만명 전문사진가의 선택! 사진전시 실적 업계 1 위 두진아트**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전 동호회 그룹전 개인전 사진인화&액자제작 납품실적 업계1위

TV홈쇼핑 액자판매실적 업계 1위

1층 액자공장 2층 전시장 사진출력실 사무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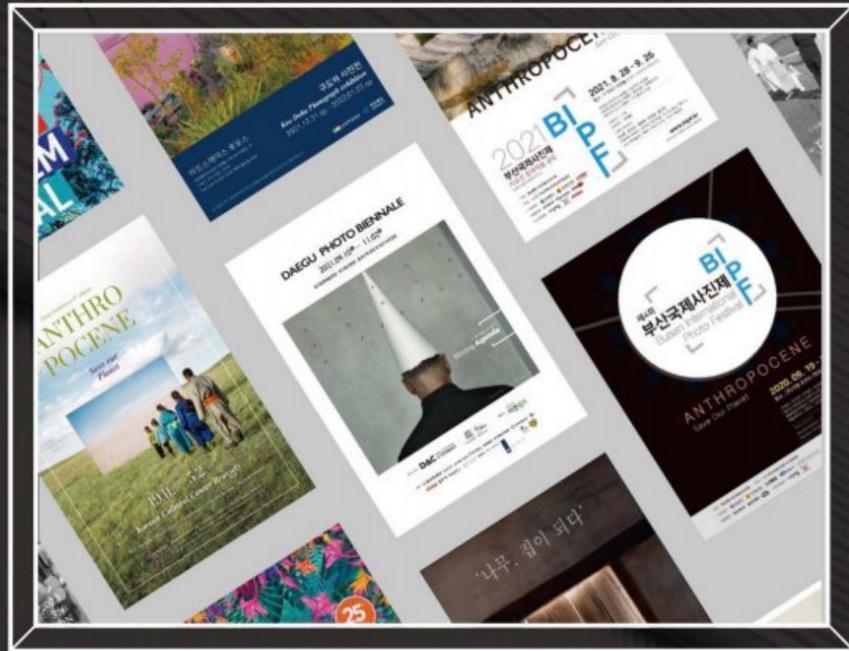
제품사양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PC 인터넷 쇼핑물. www.dujinart.com

MO 모바일 쇼핑물. m.dujinart.com

네이버 검색창에 두진아트 를 검색하세요.

# arttre



Arttre collaborates with photographers on photo exhibitions.

아트레는 전시회를 준비하시는 모든 사진 작가님들과 함께합니다.

전시회 사진출력부터 액자까지 한번에 완성맞춤



**아트레**

T\_ 1544-2188  
M\_ 010-3467-3513  
Webhard\_ID\_artre PW\_8108

**정 목 원**  
관리이사

1공정 대구시 달서구 성서로 9길 21  
2공정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황병로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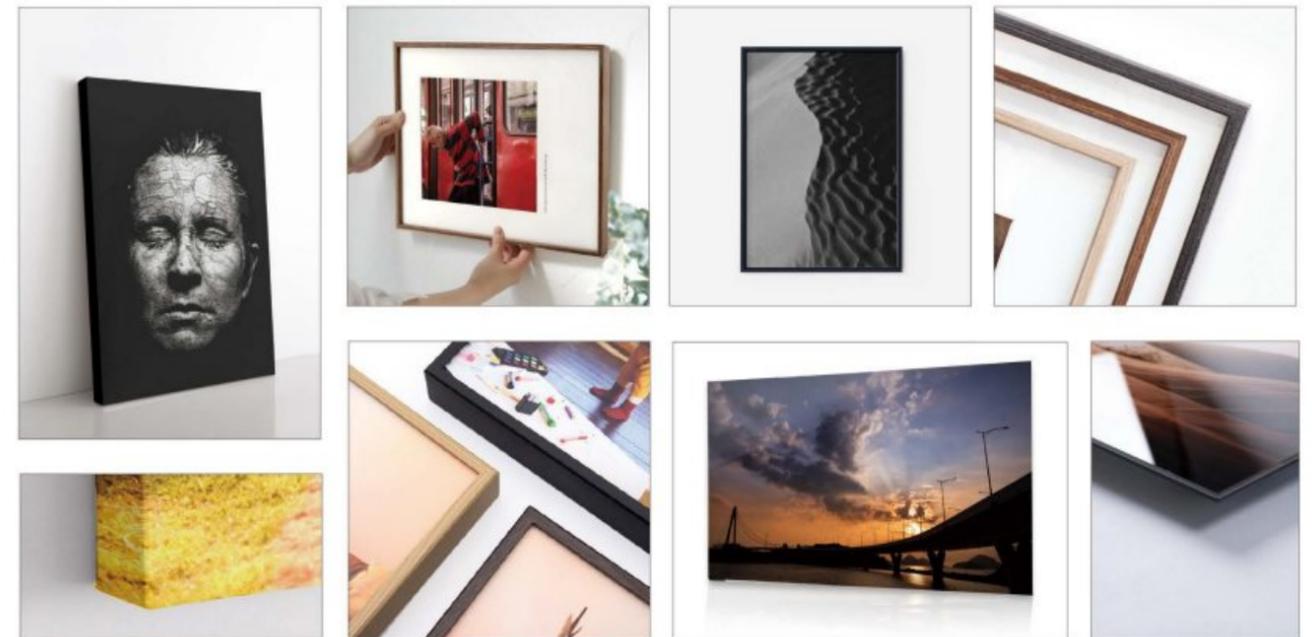
**아트레**



Arttre. No.1 in the industry  
We are with a photographer

최상의 품질과 합리적인 비용으로 전시회를 준비(출력,액자)하는 작가님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www.arttre.co.kr](http://www.arttre.co.kr)



관리부



인쇄 / 출력부



액자사업부\_1



액자사업부\_2



액자사업부\_디자인



앨범사업부



검품/포장



노리터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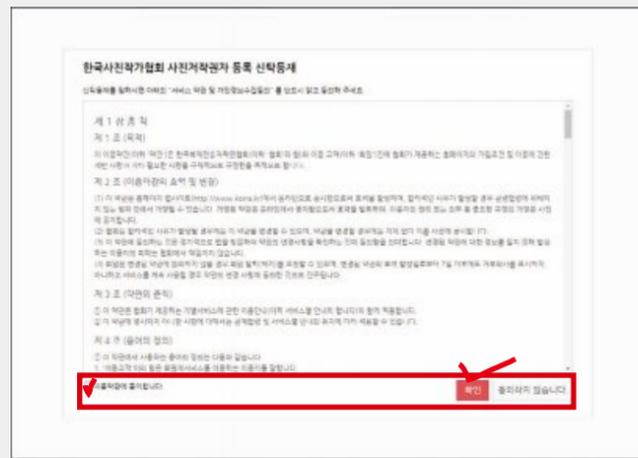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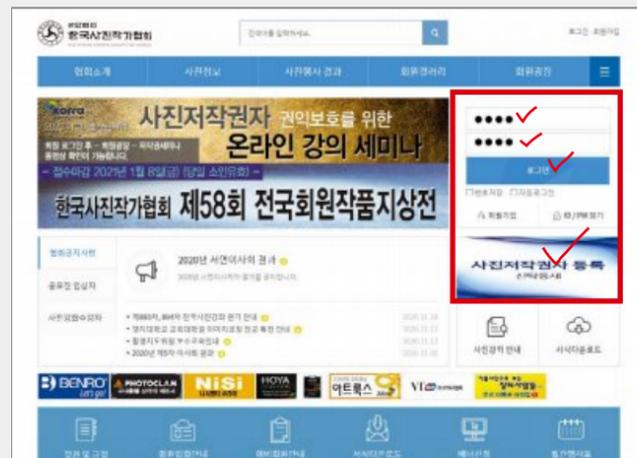
# 신탁등재는 내 사진저작물 보호의 시작입니다.

## 신탁자 등재 절차에 따라 등록이 가능!

본 협회는 (사)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와의 업무협약에 따른 사진저작权人인 본 협회 회원들의 사진저작물 침해 방지의 최선은 신탁등재로 사진저작물 침해시 최선의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에 본 협회 회원만으로도 신탁등재를 희망하는 누구든 신탁등재만으로도 신탁자가 가능합니다.  
 아래와 같이 신탁등재 안내를 드리오니 순서에 따라 등재시 사진저작물 권리침해 방지 및 저작물 보호의 시작입니다.  
 많은 회원님들이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탁등재 등록이 가능하며, 사진저작权人으로서 신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사진저작권 신탁등재 전산화 등록방법



- 1** 사진저작权人 신탁등재 전산프로그램 직접 등록절차 01
- : 본 협회 홈페이지 접속
  - : 로그인 창에 회원번호, 비밀번호 로그인 실행
  - : 하단 사진저작권자 신탁등록 배너광고 클릭

- 2** 사진저작权人 신탁등재 전산프로그램 직접 등록절차 02
- : (사)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KOLAA 이미지뱅크 신탁등록 이동
  - : 신탁등재 개인정보 및 약관 숙지 요망
  - : 최종 이용약관 동의 체크 후 오른쪽 확인 키 클릭

**3**

아이디(+)	5자 이상 20자 이하, 대소문자, 숫자	①
비밀번호(+)	5자 이상 20자 이하, 대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②
비밀번호(+) 재확인	5자 이상 20자 이하, 대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③
직가명(+)		④
직가명(영문)		⑤
필명		⑥
소속단체 (단체내 번호)	한국사진작가협회   1555	⑦
저작권자(이름)	신탁등재자 본인	⑧
이메일(+)	0000@00000000.000	⑨
생년월일(+)	예)19801201	⑩
휴대전화(+)	예)01012345678	⑪

**사진저작权人 신탁등재 전산프로그램 직접 등록절차 03**

- : ①~⑤ 순번 대로 필수 입력사항, 단 ⑥번 필명은 선택사항
- : ⑦번 소속단체는 고정 값
- : ⑧~⑩번 입력 진행,
- : ⑪번은 전화번호 입력 후 본인인증 클릭 필수

**4**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①
주소(+)	우편번호	주소검색	②
주소상세(+)	주소	상세주소	③
계좌정보	계좌은행명	계좌예금주	④

**사진저작权人 신탁등재 전산프로그램 직접 등록절차 04**

- : ①번 해당 주민등록번호 입력
- : ②번 주소검색 클릭 후 주소팝업 검색창에 주소 입력 후 해당주소 클릭
- : ③~④번 순서대로 입력 진행

**5**

계좌번호	계좌번호	①
통장사본	찾아보기	②
신분증 사본	찾아보기	③
프로필	250자 이내	④
	가입하기	⑤

**사진저작权人 신탁등재 전산프로그램 직접 등록절차 05**

- : ①번 계좌번호 입력
- : ②~③번 해당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이미지 데이터 첨부
- : ④번 250자 이내의 개인 프로필 입력, 약력사항 위주
- : ⑤번 모든 입력사항 완료 후 가입하기 클릭

※ 신탁등재 전산 회원가입이 완료 후 (사)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신탁등재 담당자의 등록승인 절차가 있습니다.  
 ※ 최종 등록승인 절차 완료 통지 후 코라 이미지(www.korraimage.com)로 접속 로그인 후 사진저작물등록이 가능합니다.

- [작가] 한국사진작가협회 사진저작권자 등록 신탁등재 페이지에서 개인정보 필수 기입 사항 입력 후 가입신청
- [관리자] 신청확인 후 가입정보 토대로 입회신청서 및 저작권위탁 신청서 각 1부 작성 후 전자우편으로 발송 (메일 미확인 시 작가분 연락처로 문자안내 및 유선 안내 드립니다.)
- [작가] 각 신청서 검토 후 서명날인하여 관리자에게 회신
- [관리자] 확인 후 정회원 승인 (확인문의 :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신탁등재 담당자 070-4265-1500)
- [작가] 코라이미지 사이트(www.korraimage.com) 저작물 등록 가능(최대 5개) 이후 추가 등록물은 본 협회 사진저작권 담당자에게 전달 또는 문의요망 (02-2655-3131)



유효기간 : ~2023.11.30 (객실 기준)

패키지 구성

객실 + 조식뷔페 (하반) + 발왕산 케이블카 스카이워크 + 워터파크 오후권 또는 애니포레

BIG 9 할인권

케이블카 40%, 워터파크 40%, 공룡박물관도 20%, 경호관도 20%, 부지 1회권 20%, 마운틴코스터 20%, 티디아트 15%, 모나해이커리 10%, 더샵리 10%



예약사이트 바로가기

2인 PKG	정상가 508,000원	<b>119,000원</b>	76%
3인 PKG	정상가 592,000원	<b>159,000원</b>	73%
4인 PKG	정상가 676,000원	<b>199,000원</b>	70%

이용안내

1. 제휴사링크 접속 <https://weare.pscms.co.kr/staff/mona/product>
2. 제휴사 ID, 인증번호 입력 ( ID : YP28 / 인증번호 : 1190519 )
3. 상품 결제하기
4. 구매 후 문자(카카오톡)수령, 카카오톡 내 URL 예약 링크 접속  
\*2달 이내 날짜만 예약 선택 가능
5. 객실 예약하기 클릭 후 이용일 / 객실 선택
6. 예약 확정 번호 문자 수신
7. 해당일에 프런트 방문 후 이용

패키지 구매

운영비즈니스 제휴사

제휴사ID YP28

제휴사 인증번호 00000000

구매자 이름

구매자 전화번호

결제방식 신용카드

선택한 비행을 구매 하시겠습니까?

결제하기 할거

환불 및 안내사항

1. 구매 후 미사용시 유효기간 내 취소신청 시 100% 환불 가능합니다.
2. 상품 환불 및 취소는 고객센터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고객센터 02.6925-3193 / 운영시간 : 월~금 09:00 ~ 17:00(점심시간 12:00~13:00)
3. 해당 판매가는 호텔 디렉스, 타워콘도 18타입 기준 요금이며, 객실 증평 및 주말은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추가 요금은 체크인 시 프론트에서 결제 해주시면 됩니다.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사진예술 아카데미

사진작가과정 제3기 졸업전

The PASK Master Course of Photography Art 3rd Graduation Exhibition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사진예술 아카데미 사진작가과정 제3기 졸업전시

2024. 1. 10 ~ 16  
Gallery Lamer 3F  
(6, 7 exhibition room)

Opening\_ 2024. 1. 10(wed) pm15:00

# 월간 한국사진 1월호 표지원고 투고작품



· 황윤철 · 겨울이야기  
 찬바람이 불니다. 둥근 달이 두 개나 났습니다. 역새는 찬바람에 고개를 숙이고 철새는 따뜻한 동지를 찾아 길을 떠납니다. 겨울이 오나 봅니다.



· 이종행 · 환희



· 홍이선 · 용안(龍顏)



· 강태호 · 지난 가을의 추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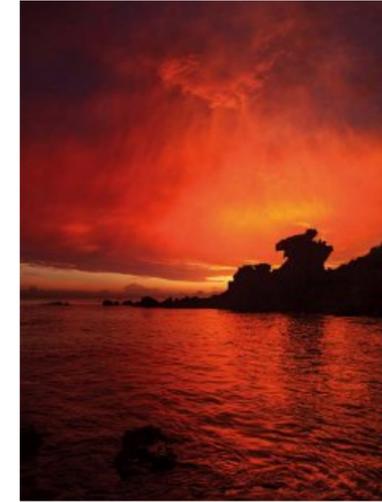
· 김채수 · 얼음 마블링  
 매크로렌즈로 살얼음의 표면 초점을 달리하여 마치 물감의 마블링 작품처럼 표현하였습니다.  
 아주 얇은 냇물의 살얼음 아래 작은돌의 형상과 햇빛의 온도 그리고 얼음질에 따라서 마블링의 형상과 칼라는 다양한 문양으로 표현이 됩니다.



· 손한성 · 무제



· 이만수 · 무상무념(無想無念)  
 변산반도 서쪽 끝 칠산바다 바라보면 역경의 세월속에 긴생각에 잠긴 큰 거인, 해는 뉘엿뉘엿 서산에 기울고 있는데 고기잡이하러 바다로 간 돌아오지 않는 자식을 기다리는것인지 보는 이들의 심금을 울리는 하얀바위가 있습니다. 필자는 거의 50여년을 사진이란 매체와 함께하면서 우리가보는 찰라의 순간들에도 보이지않는 수억년의 세월이 함께 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 조규남 · 용천비(龍天飛)

## 월간 한국사진 표지 투고작을 모집합니다!

월간 한국사진 표지는 우리 협회의 얼굴입니다. 이에 표지투고 선정작 작가에게 더 많은 자부심과 혜택을 드리고자 표지 선정작가에게 30만원의 사진창작활동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구상, 비구상 뿐 아니라 현대사진 패러다임의 사진작품이 게재되어 월간 한국사진이 진정 대한민국 대표 사진전문 잡지로 사진예술인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월간 한국사진 표지투고에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도전을 기다리겠습니다.

### · 표지 작품성 강화를 위한 개선된 투고 선정 방식

1. 표지 작품성 강화를 위해 임원, 지회·지부장 추천 투고 신설
2. 표지가 세로도판인 관계로 세로형 작품 및 작가노트 충실 요망
3. 투고작 심의 - 이사위원회 출판팀 선정

※ 단, 최종 선정된 표지 원고는 월간지 작업시 상황에 따라 약간의 변형이 될 수 있음. (작품 변형을 원치 않을 시 투고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단, 촬영데이터 ( Exposure Data S/F Camera, Lens, 장소, Focal Lench, Filter 등) Interval, Time lapse, Inverted(반전), Tilting, Zooming, Panning, 장노출 등 모든 촬영기법 및 현상기법과 내용을 표지투고시 공개해야 함. 선정작에 한해서만 상세사항은 기재되며 미선정작은 공개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 월간 한국사진 표지원고 투고 방법

웹하드(www.webhard.co.kr) - 아이디 kpassk / 비밀번호 kpassk 접속 후 올리기 전용 - 월간 한국사진 표지투고, 추천투고 중 택1 폴더 선택 - 선택 폴더에 투고자 성명 폴더 생성 후 작품2점 + 작품명, 작가 노트, 촬영데이터 및 이력사항(연락처) 업로딩 요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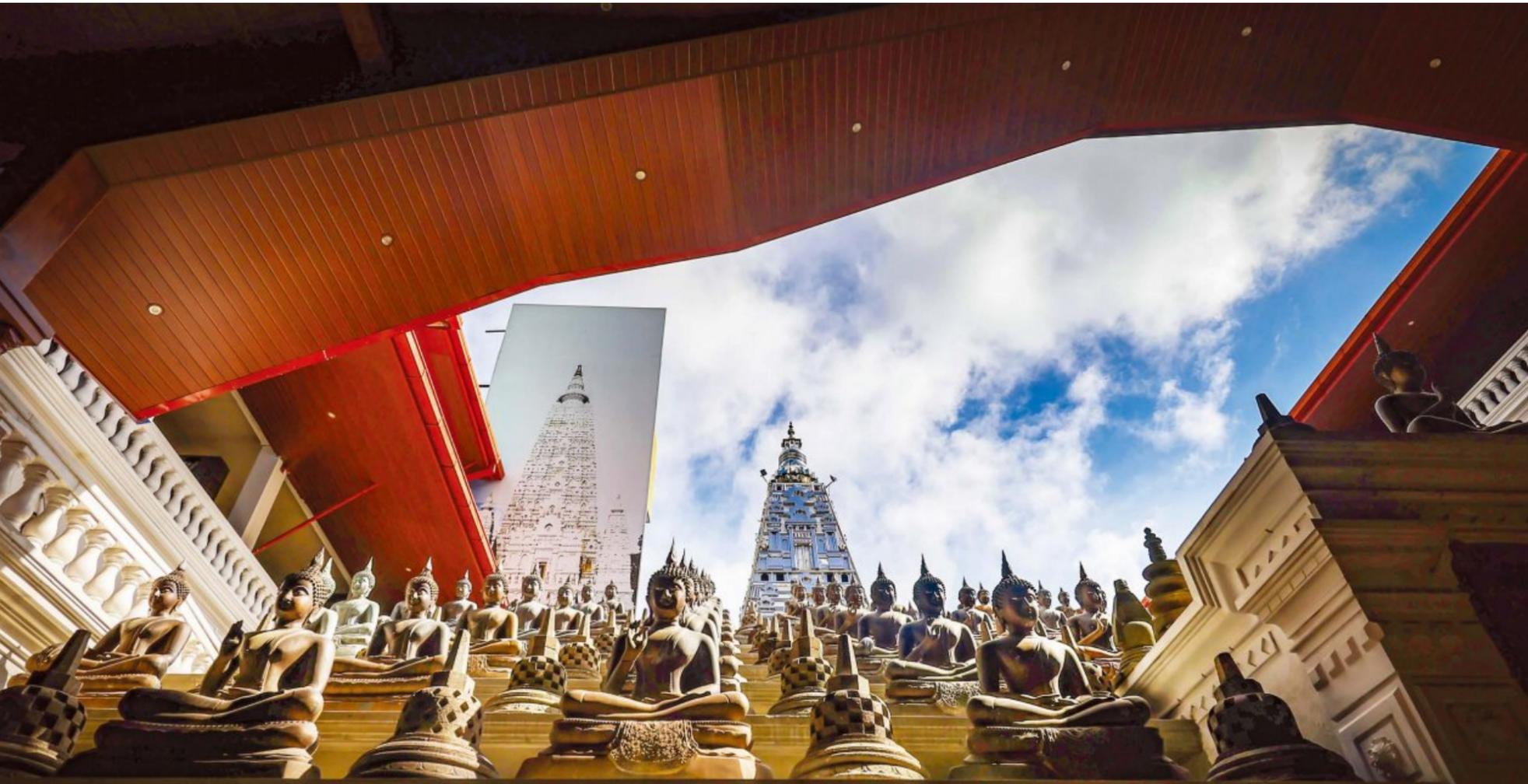
※ 월간 한국사진 표지투고 마감일 전월 20일 마감입니다.

# Pearl of the East – Sri Lanka, 동양의 진주 스리랑카

박대병(용인)

한 때는 강력한 제국이였다. 코끼리를 부리고 수많은 백성을 동원하여 사원을 짓던 왕국. 실론의 영화가 지금은 관광지로 살아 남은 유적지에서 숨쉬는 듯하다. 고대 왕국의 흔적을 찾아서 동양의 진주로 떠나보자.

©박대병\_문화유적 1



©박대병\_야생동물



©박대병\_바다이야기 1

전시일시 2024년 2월 21일(수) ~ 2월 26일(월)  
전시장소 인사동 마루갤러리 2F 제5전시실  
전시작가 박대병



©박대병\_자연과 생활 1

**2) 문화유적지**

스리랑카는 2,500년이 넘는 풍부한 문화유산을 자랑하며 인구의 70%가 불교이며 힌두교와 이슬람교, 그리스교 등 다양한 종교문화가 발달된 나라이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고대도시 아누라 다푸라 (Anura dhapura)와 5세기 건설된 것으로 추정되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다.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불리는 시기리아(Sigriya)의 바위요새와 스리랑카의 문화수도라 불리는 캔디에는 부처님의 신성한 치아 유물을 보관하고 있는 중요한 불교 유적지인 불치사가 있다. 풍부한 역사와 경이로운 고대 건축물과 더불어 매년 전통무용과 행렬을 선보이는 에살라 페라하라(Esala Perahera)가 열린다.

**3)야생동물과 조류**

스리랑카는 지형상 중부고지와 남서부, 북부 저지의 4개 지역으로 나뉜다. 스리랑카는 적도 기후지대로 연평균 기온이 27~28도에 이르며 상대 습도가 매우 높은 열대몬순기후로 제주도처럼 내륙 지역은 높은 고지대가 많고 해안지역은 저지대 지형이 특징이어서 코끼리, 사슴, 표

범, 물소, 원숭이, 다람쥐 등 야생동물과 악어, 도마뱀, 카멜레온, 이구아나 등 여러 종류의 파충류가 서식하며 연평균 강우량이 많아 드넓은 초원과 다양한 생물이 자란다. 공작새, 두루미, 백로, 까마귀, 가마우지, 물총새 등 희귀새들의 천국으로 알려져 있다.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해 스리랑카 전역에 여러 국립공원들로 지정해 놓고 있으며, 특히 알라 국립공원(Yala National Park)은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유명하다.

**4) 자연과 생활**

인도양에 둘러싸인 이 섬나라는 숨이 멎을 듯 한 아름다움과 자연경관과 독특한 생태계로 여행객을 사로잡으며 무성한 열대우림으로 안개 낀 산과 깨끗한 청정 바다와 생명이 가득 살아 숨 쉬는 정글 숲, 순박하고 열정이 넘치는 사람들로 다양한 농산물과 수산자원이 풍부하여, 인심 좋고 근심 걱정이 없는 지중해의 지상낙원으로 알려져 있다. 아름다운 자연들이 펼쳐져있는 중남부의 고산 차밭지대인 이곳을 홍차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Ceylon Tea"로 유명하며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기차길 나인아치 브리지(Nine Arches Bridge)는 외국 여행자들이 모이는 유명한 관광명소이다.

©박대병\_바다이야기



©박대병\_문화유적 2

인도양에 있는 아름다운 섬나라 스리랑카는 팔크 해협을 사이에 두고 인도 반도의 남동해안과 마주 보고 있으며, 옛 이름은 실론(Ceylon)이다. 과거 오랜 영국의 식민지 생활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는 아직 유럽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으며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운 지중해의 바다 풍경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고대도시와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불리는 시기리아(Sigiriya) 바위 요새 등 전통문화가 잘 보존되어 있으며, 전 세계에 생산되는 홍차(Ceylon Tea) 재배단지과 드넓은 초원이 위치한 알라 국립공원(Yala National Park)은 코끼리, 표범 원숭이 등 야생동물을 직접 볼 수 있으며, 스리랑카 전역은 희귀 새들의 천국으로 알려져 있고, 기차를 타고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나인아치 브리지(Nine Arches Bridge)등 아름다운 나라로 찬란히 빛나는 "동양의 진주"라고 불립니다.

**1) 바다이야기**

인도양의 에메랄드빛 질푸른 바다와 눈부시게 아름다운 황금빛 모래 해변과 파란 하늘로 자연경관이 예술인 바다는 언제나 변함없이 다가오는 뜨거운 감동과 달콤한 코코넛 향기가 콧 가를 스쳐 가며 여행의 피로를 풀어 주었고 인도양을 누비는 돛단배 루왈 와루아(Ruwal oruwa)는 바람이 부는대로 쉴 새 없이 움직이며 고기잡이를 한다. 아자수가 늘어난 해안가에서 마주한 검푸른 파도와 수평선은 답답했던 가슴을 탁 트이게 하고, 마음의 평화를 꿈꾸게 하는 바다가 환상 그 자체로 아름다운 감동이었다.



©박대병\_자연과 생활 2





# 마음 다스리는 군자의 음료, 그 멋과 향 나의 향기, 잊혀 가는 전통 茶禮 문화

정금 화(강동구)



맑은 차를 우려 제사를 지내고 그 향기를 만끽하던 차 문화가  
이제 범람하는 커피와 카페 문화에 밀려나고 있어 안타깝다.  
마음을 다스리는 예법으로 '다도'라는 도의 경지에서 즐겼던 차 향속으로 떠난다.



©정금화\_나의 향기 - 잊혀 가는 전통 茶禮 문화

전시 일시 2024년 2월 14일(수) ~ 2월 19일(월)  
전시 장소 가천대학교 비전타워 갤러리 B1F  
전시 오픈 2024년 2월 14일(수) 오후 4시  
전시 작가 정금화

다례(茶禮)를 공부하면서 차(茶)가 우리 고유의 문화라는 걸 알게 되었다. 차를 매개로 추사와 초의선사의 '동다송' 우정이나, 일본의 찻그릇은 백제의 도공이 만든 작품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렇듯 한국의 막사발이 일본의 중요한 차 도구가 된 것이다. 대명절인 추석이나 설 날 차리는 '차례상'은 차(茶)를 올리는 예(禮)에서 유래했다. 바로 "차례(茶禮)"란 명절에 조상님들께 "차(茶)"를 올려 정성을 다하는 효심이다. 우리 다례 문화의 우수성은 아쉽게도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변질되어 차례상에 차(茶)대신 술(酒)로 대체되어 다례(茶禮)가 아닌 주례(酒禮)로의 변화는 참으로 애석한 우리의 단면이다. 오후

슬프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전통 다례 문화를 알리고 재현하고자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내 삶이 차향에 젖어 살고 있다.

"차를 끓여 마시니 편견이 없어지고 마음이 밝고 맑아져서 생각은 그릇됨이 없다. 차는 마음을 바르게 하고(正心), 마음을 다스리며(修心), 일가를 이루는(齋家) 길" 군자의 길이라고 했던 옛 성현의 말이 가슴에 찡하게 저려온다.

"일상다반사(日常茶飯事)", "다선일미(茶禪一味)"라는 말에서



©정금화\_나의 향기 - 잊혀 가는 전통 茶禮 문화



©정금화\_나의 향기 - 잊혀 가는 전통 茶禮 문화



©정금화\_나의 향기 - 잊혀 가는 전통 茶禮 문화



©정금화\_나의 향기 - 잊혀 가는 전통 茶禮 문화

도 알 수 있듯이 선조들이 항상 茶를 마시며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는 선(禪)을 실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의 삶에서 여유와 너그러움과 배려는 차를 통해 시작되었다. 나의 차 생활은 빠르게 변모해가는 현대사회에서 나의 심신을 편안하게 보듬어주고 안정시키는 에너지가 되었다.

지금도 명절에 차례(茶禮)가 아닌 주례(酒禮)는 참으로 아쉽게 여긴다. 우리 차례상에 차를 올리고 극진한 예를 갖추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일상다반사 하셨을 선조들처럼 차를 통하여 몸과 마음을 다스리고 전통 다례 문화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자 찻그릇들과 다식들을 사진에 담아 보았다. 커피가 대세인 서구화된 현실이지만 우리 전통 다례 문화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어 그 멋과 향이 우리에게 스며들면 좋겠다. 다선일미가 한국의 향으로 피어나 세계로 퍼져나가기 바란다.

# 렌즈로 보는 '순환의 섭리 자연의 얼굴' 시(時)와 공(空)을 중첩하다 이기복(수원)



©이기복\_시와 공을 중첩하다 #3

사진은 순간을 촬영한다.  
그 찰나의 시간을 붙잡기에 결정적 순간을 포착하지만  
그 앞과 뒤의 시간을 포기하게 된다. 그러나 시간을 중첩함으로  
나의 사진은 그 한계를 벗어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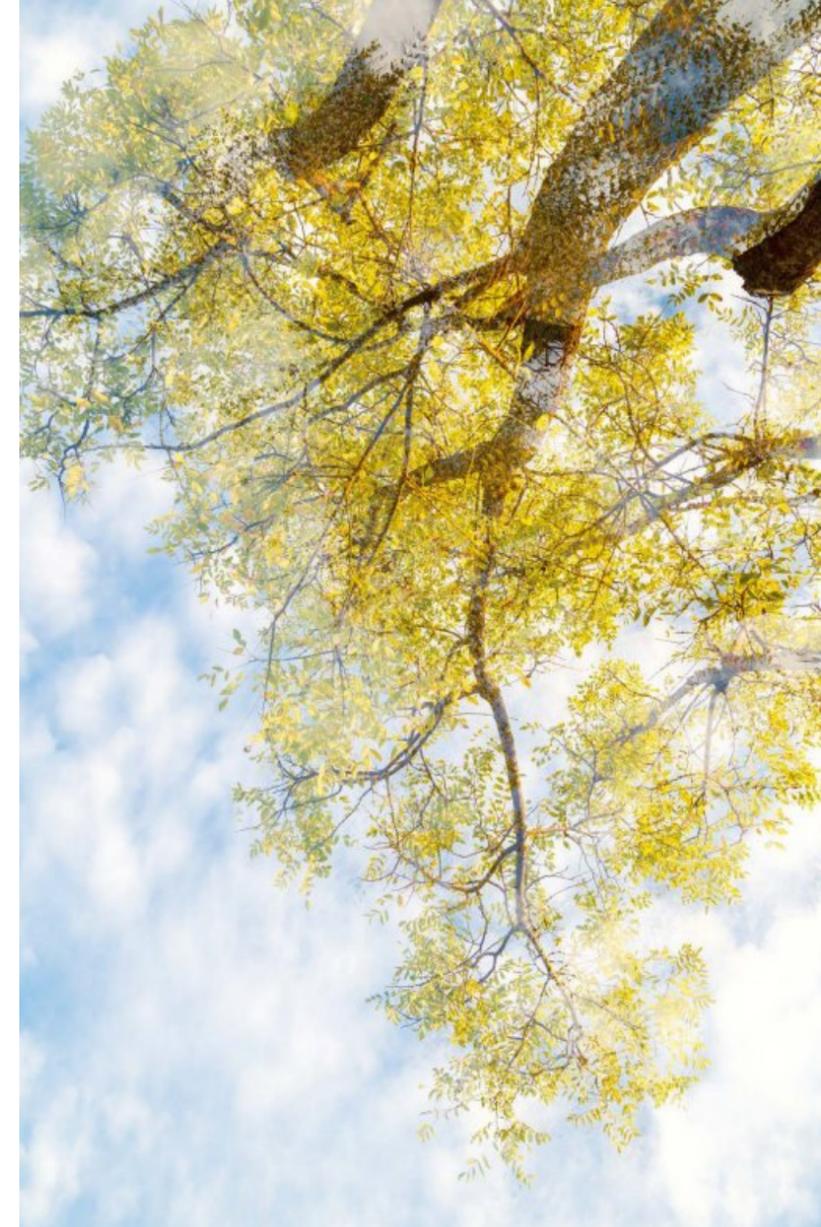
사계절의 순환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일상생활에서  
렌즈를 통해 보이는  
자연의 아름답고 신비로운 모습을 담으며  
하루하루가 다르게 느껴지며 다가오는 자연에 늘 새로움을 느낀다.

내 안의 새로움을 발견하고 창작의 기쁨을 발산시키고 싶은 욕구는  
전통적인 사진에서 추구하는 사실적 기록성에서 벗어나 독특한  
시각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촬영기법을 탐구하게 되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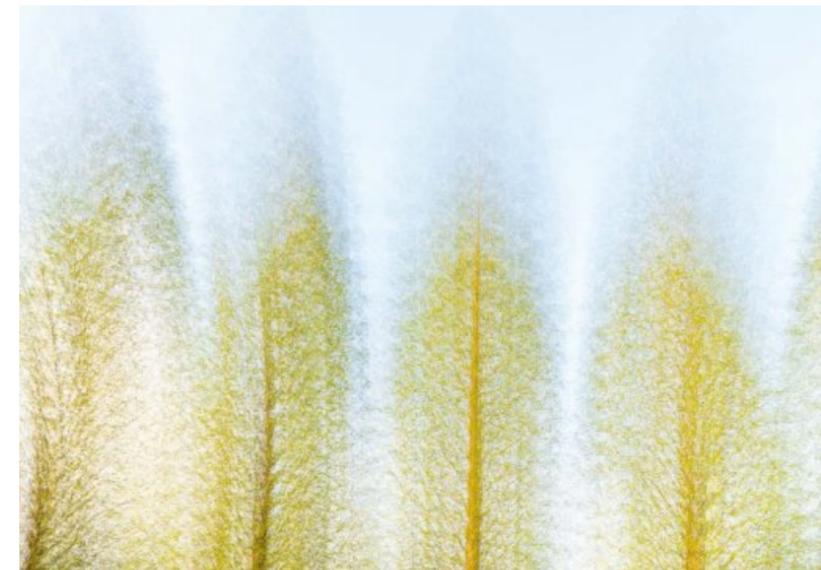
나무를 소재로 시간과 공간이 중첩되어 나타나는 자연 속에서  
한 장의 사진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에 대해  
새로운 시선을 부여한다.

시간의 흐름으로 다양한 자연의 얼굴과 상징을 보여주는 나무!  
그 나무의 아름다움을  
나만의 시선으로 해석해 보고자 한다.

전시일시 2024년 1월 30일(화) ~ 2월 7일(수)  
전시장소 수원장안구민회관 노송갤러리 1층  
전시작가 이기복



©이기복\_시와 공을 중첩하다 #2



©이기복\_시와 공을 중첩하다 #1



전시광고

꽃 피워 열매 맺고...

이어진 우리 사이

# 蓮(연), 緣(연)

염미영(수원)

전시일시 2024년 1월 30일(화) ~ 2월 7일(수)

전시장소 수원 장안구민회관 노송갤러리 1층  
(관람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일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

전시작가 염미영

시간이 흐르면 세상 만물처럼 사람도 변화한다.  
흐르는 시간처럼 인연의 끈이 다음 생애에서도  
이어지기를 기약해본다.

©염미영\_蓮, 緣(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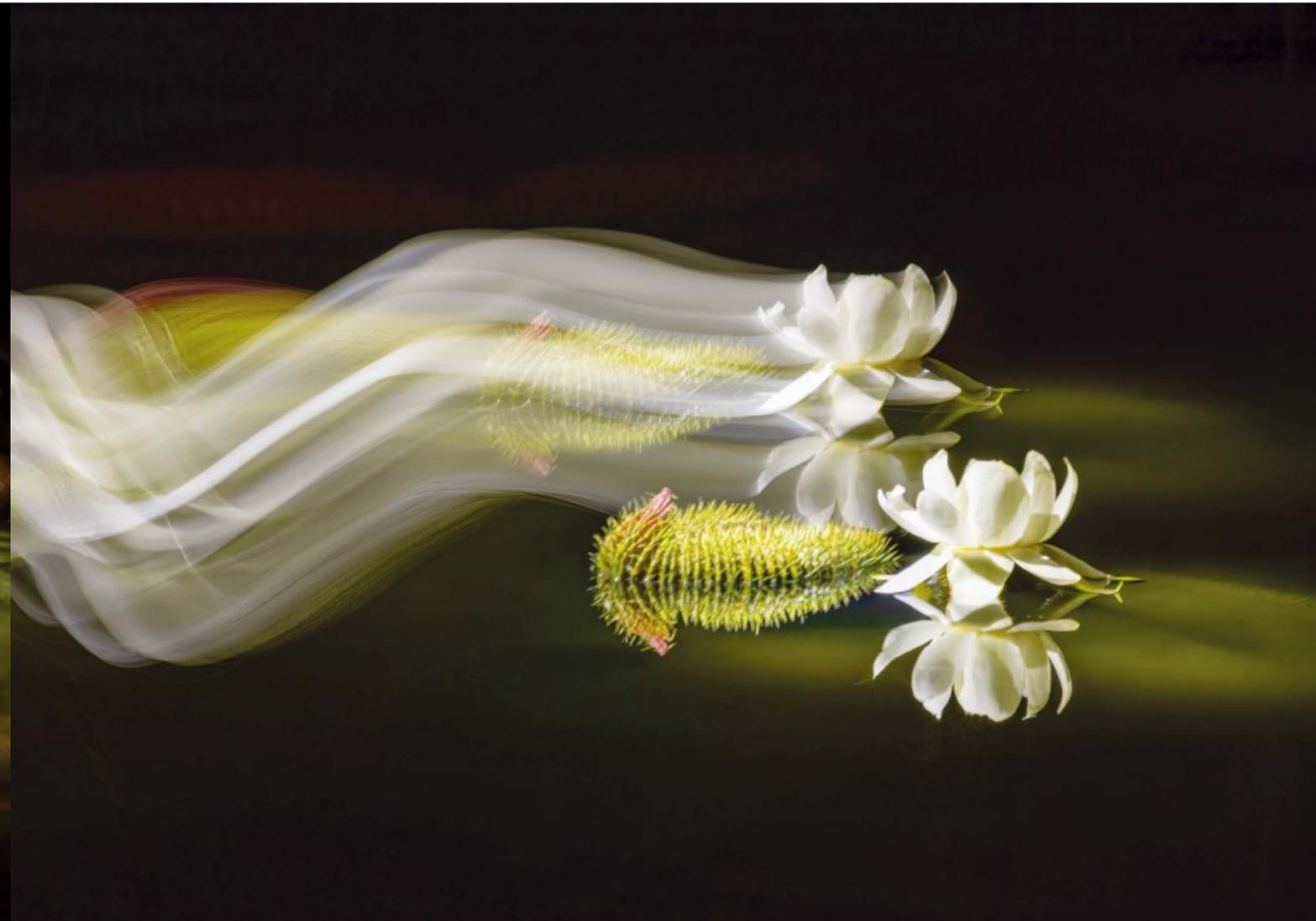
©염미영\_蓮, 緣(연)

©염미영\_蓮, 緣(연)

십여 년 전부터 사진을 꿈꾸며 살아온  
우리 부부는  
35년의 교직생활을 과감히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사진작가로서의 활동을 위해  
사진에 대한 연구와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별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평범하지도 않은  
핸드헬드 기법으로 연꽃을 담으며  
더 각별한 인연과 놓치고 싶지 않은 끈으로  
우리를 이어주는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연꽃, 흔히 우리가 명명하는 큰 가시연!  
연이라는 꽃과 부부라는 삶은  
핸드헬드 기법으로 촬영하면서  
자연과 인간,  
그리고 생애의 순리에 대한 깊은 의미를  
부여해 준다.



볼 수 없는 것 보여주는 생명의 원천  
**어름 속의 세상**  
김승훈(송파구)

전시일시 2024년 2월 21일(수) ~ 2월 25일(일)  
전시장소 가천대학교 비전타워 갤러리1실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342 비전타워B-1)  
전시오픈 2024년 2월 21일(수) PM.4시  
전시작가 김승훈



©김승훈\_겨울 속의 풍경



©김승훈\_겨울 속의 풍경

물과 공기와 빛은 볼수록 신비로운 생명의 원천이다. 그 중 물과 빛은 보이지만 공기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물의 알갱이가 포착한 공기는 방울방울 내 카메라가 조율하는 빛을 통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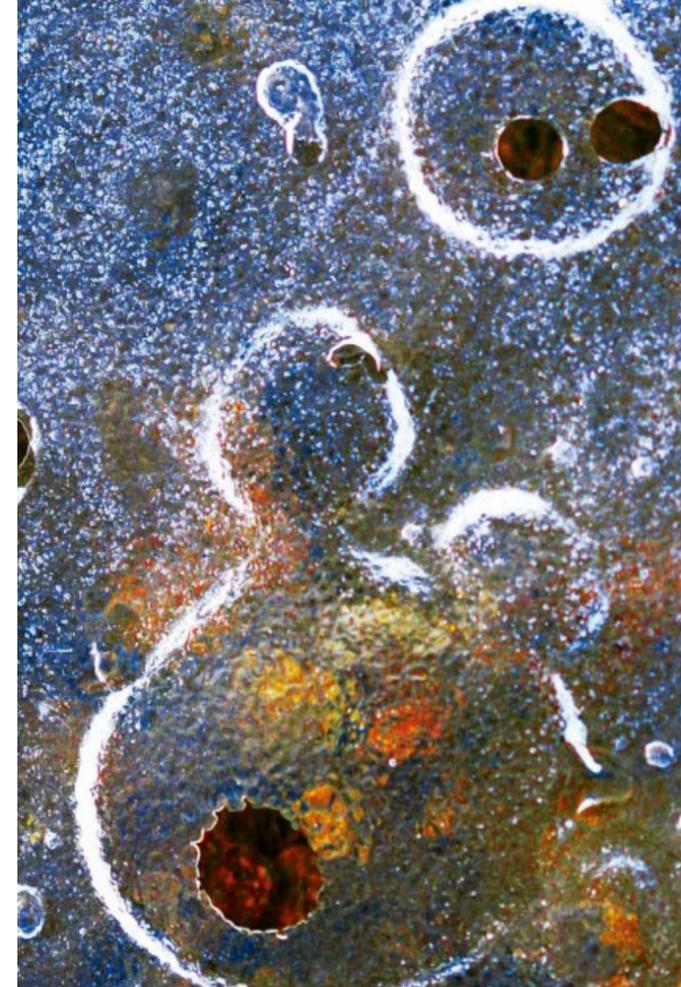
©김승훈\_겨울 속의 풍경



©김승훈\_겨울 속의 풍경



©김승훈\_겨울 속의 풍경



©김승훈\_겨울 속의 풍경



### 어름 속의 세상

그 안에 빛과 색을 찾아 10년의 결실을 담아낸다.  
10년 중 겨울에서도 가장 추운 날에만 진행되는 짧은 시간의 창작활동  
사계 중 작업의 시간은 늘 겨울에만 진행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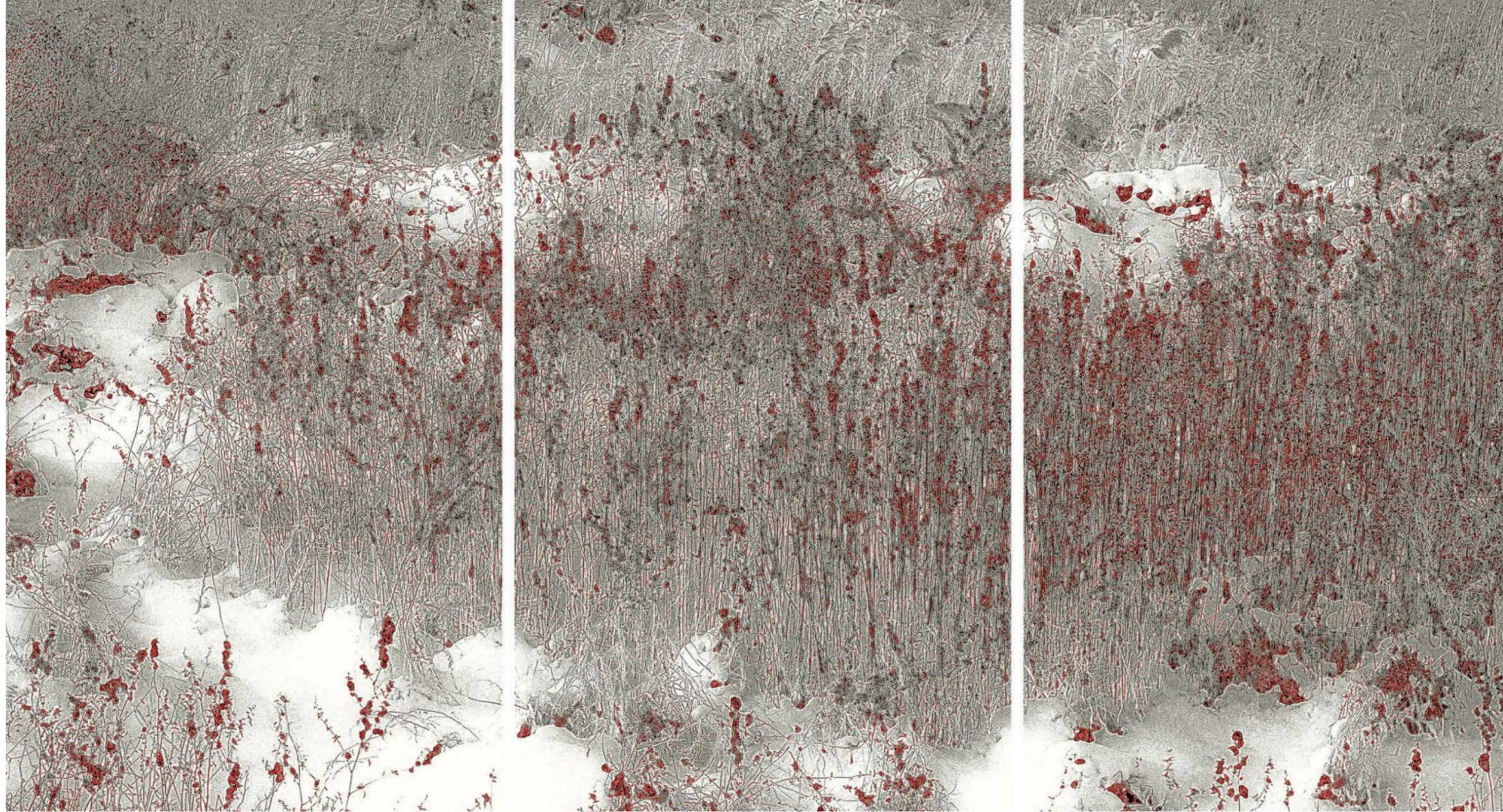
우연히 어름 속에 비치는 오묘한 형상.  
빛과 색에 매료되어 얼음 위를 걷고 또 걷는다.

창작의 시간을 갖기에는 짧은 시간  
추운 겨울날 얼음 위를 걸으며,  
어름 속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빛과 색만을 찾아 가는 중  
또 하나의 내 인고의 시간을 보낸다.

어름 속에서 펼쳐지는 또 다른 세상  
그 속에서 내가 찾아던 빛과 색을 보며  
나만이 느끼는 사진의 희열을 맞본다.

짧은 시간 속에서 얻는 또 다른 세상  
어름 속의 세상은 또 다른 내 삶의 세상을 엿본다.

이젠 그동안 세월의 시간을 추억하며,  
내가 봐왔던 소중한 그 세상을 선보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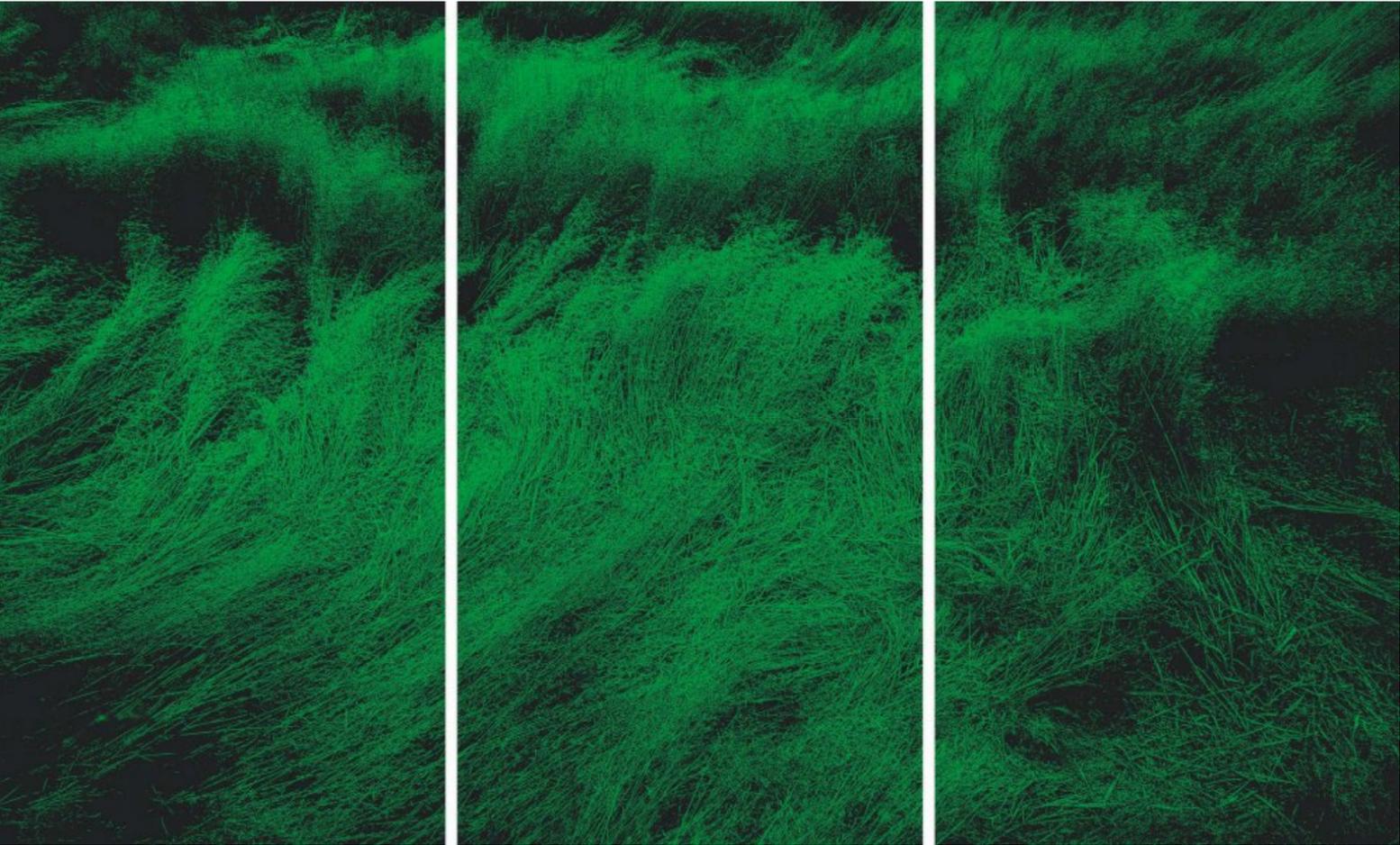


©서성강\_달맞이꽃대

보이는 영역 넘어 마음 속 색채로...  
**‘현실의 반영과 변형’**

서성강(천안)

눈에 보이는 것만큼 확실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보이는 것이 늘 정확한 것은 아니다.  
빛의 조사 방법이나 각도 스펙트럼에 따라서 오브제의 색상은 천변만화한다.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라 그 물체가 본질적으로 간직한 색상이 무엇일까 생각하며 작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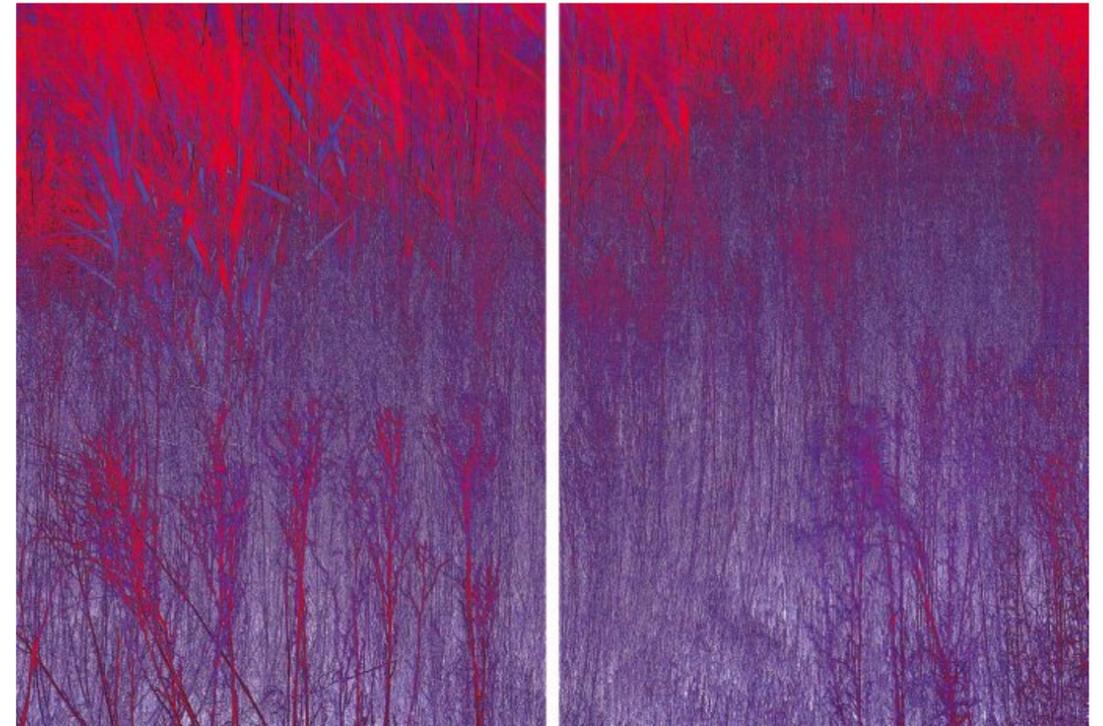


©서성강\_물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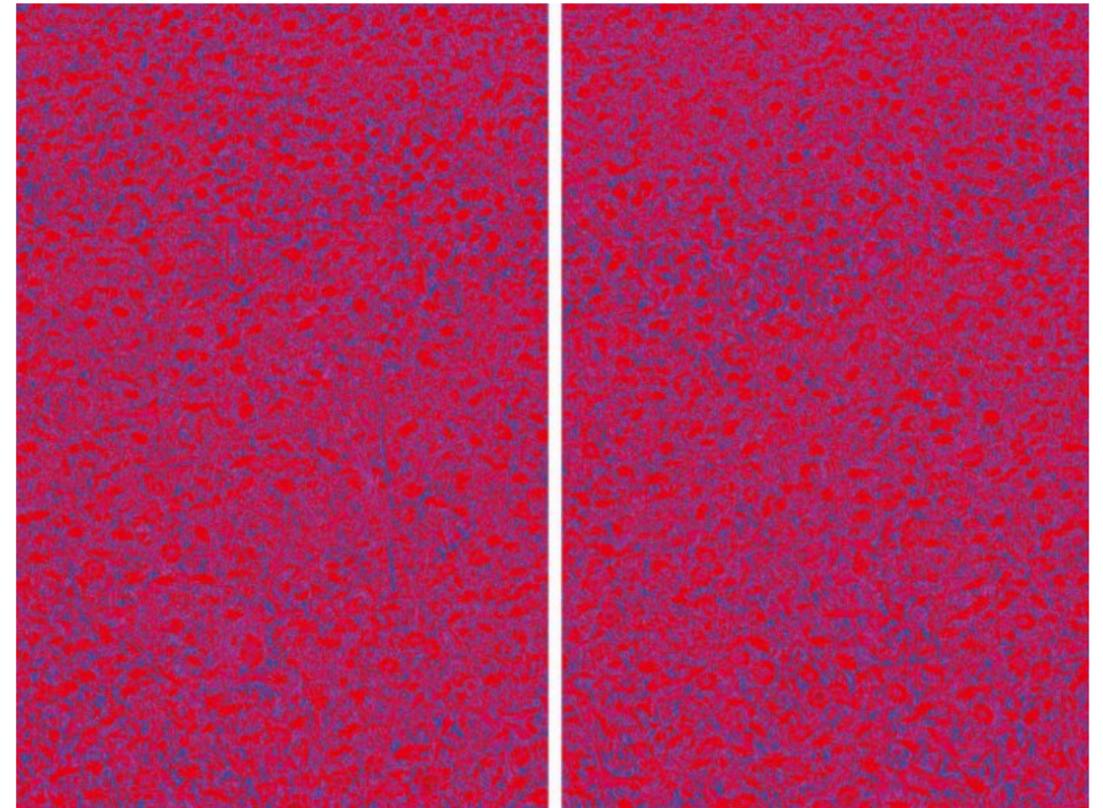
입체적인 공간, 소리, 냄새, 바람, 햇빛... 그리고 감정이 동화되었을 때 그 사물과 마주한다. 그 사물에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의미가 마음에 와 닿았기 때문에 마주 서서 내면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기록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환경을 배제하고 인화지라는 평면 위에 색채에 의한 형태만으로 인간의 감정을 온전히 표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것이 내가 인식하는 사진예술이다.

사물이 가지는 물성 그리고 그 자체가 처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사진이라면, 이번 작품은 사뭇 다르다. 물성 자체의 질감과 또는 그 주변의 색채를 변화시켜 사진이 가지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려 했으며, 고립된 앵글을 추상화하여 표현의 범위를 넓히는데 목적을 두었기 때문이다.



©서성강\_갈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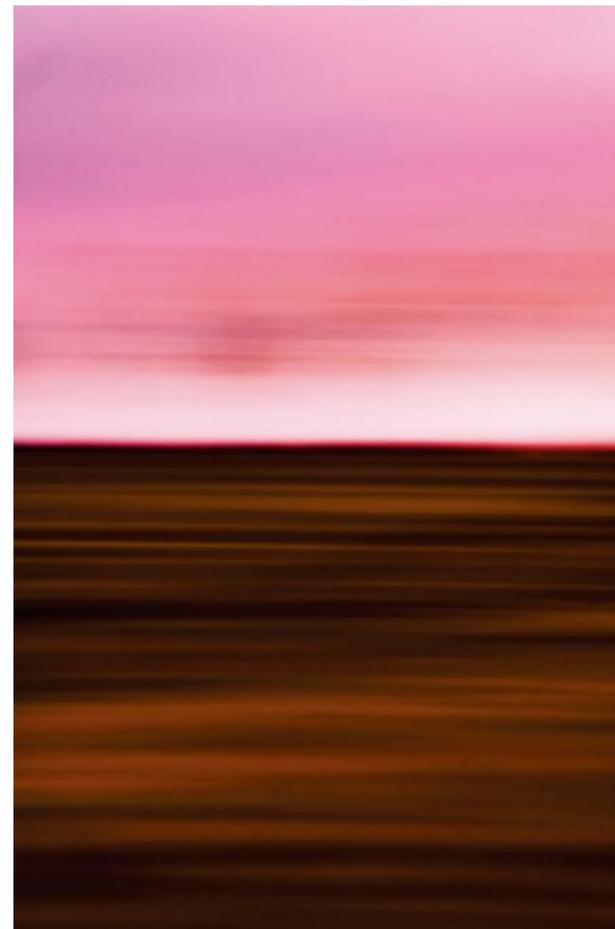


©서성강\_고들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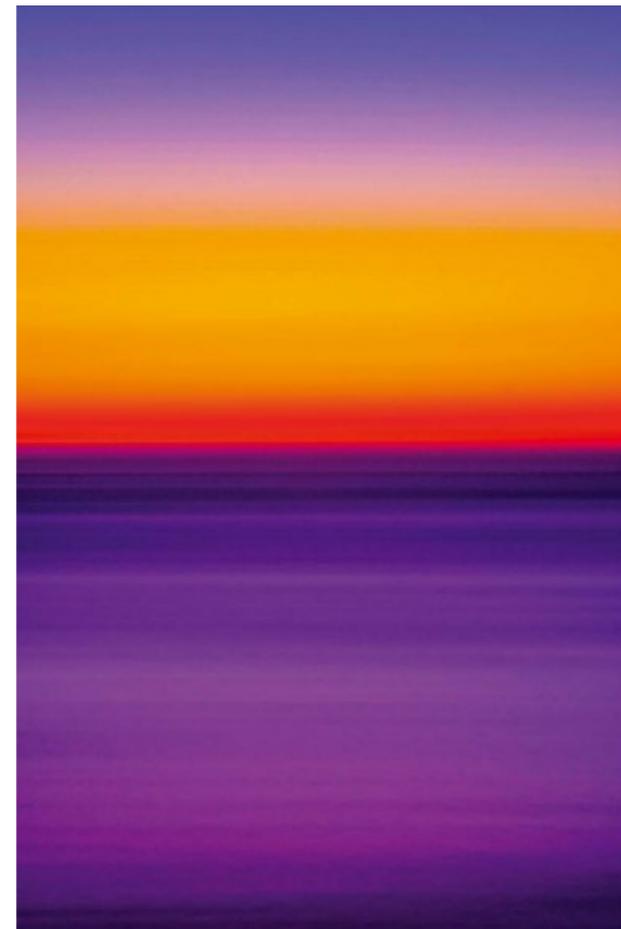
# 3차원 공간 버리고 2차원 평면 취하다 Cherish the Time 시간 품은 빛 & 색

송재운(광주)

©송재운\_Chерish the Time (빛&색을입히다)



©송재운\_Chерish the Time (빛&색을입히다)



©송재운\_Chерish the Time (빛&색을입히다)

회화적인 면을 사진에 도입 색면추상의 회화의 평면성을 집중. 빛으로 부터 시작해서 공간미의 선과 색을 느낄 수 있는 긴 시간의 작업이며, 사진에서의 빛은 많은 변화와 다채로운 느낌과 깊게는 희로애락을 함축하고 있다.

회화의 대표적인 예술가인 마크 로코스, 잭슨 폴록, 클로드 모네 그리고 미니멀아트 윤중주 작가 등 많은 거장의 공통점을 모티브로 색 면 구성을 추상적으로 카메라 앵글에 담기 위해 무던히 많은 시간을 이른 새벽빛과 늦은 저녁 빛의 작업에 몰두하였다.

색면회화는 전면회화와 무관계 회화의 경향에 근거하였으나 구체적인 물질을 묘사하려 하지 않았다. 색면회화는 화면의 전면 구성을 통한 회화 본래의 평면성에 주의를 기울였고 극도로 단순화한 형태를 추구하였다.

즉 3차원 공간감이 주는 착시 효과를 거부하고, 캔버스를 2차원 평면으로 바라보며 물감을 넓게 퍼 발라 캔버스 전체를 색채로 뒤덮는다. 이때 캔버스는 물감이 칠해지는 바탕이 아니라 안료와 함께 일체화되는



짧고 짧은 찰나의 순간에도 빛이 흐른다. 그리고 수십광년 태양계 너머에도 빛이 찾아온다.  
카메라의 셔터로 포착하고 캔버스에 융합해 빛과 색을 미니멀아트 형태로 표현해본다.



©송재운\_Chersh the Time (빛&색을입히다)

것이다. 따라서 캔버스는 거대한 규모로 확대되고, 순수한 색과 면의 추상이 주는 새로운 효과를 거두었다. 궁극적으로 순수한 시각의 미술을 추구한 것이다.

이에 빛을 긴 시간 카메라의 간격을 유지 반복, 수십 차례 빛을 덧입혀 겹겹이 쌓아 올려 빛과 피사체가 함께 일체화되고, 경계를 이루고 허물며 선과 면, 빛과 색, 밝음과 어두움, 하늘과 대지, 빛과 반영 등을 담은 추상적인 작품으로 생동감 있는 분위기를 신비롭고 깊은 명상적 회화로 구현하였다.

제 작업은 빛을 이용한 색면은 보다 시각적인 사진의 출발점을 제시하고, 그리고 극도로 단순화한 화면 내의 형태를 캔버스의 장방형 구성에 관련지어 색면회화의 경향에 미니멀아트의 기초로 보고, 빛을 느낄 수 있는 작업이다.

‘고요함 속에서도 일렁이는 듯한 색감의 움직임과 변화, 표면의 따뜻함과 울림을 통한 공감각적인 느낌과 같은 것들이 그것이다. 세상의 수많은 색이 존재할지라도 시간이 축적된 하나의 색면이 충분한 감동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윤종주 작가의 바람처럼 저 또한 같은 맥락으로 색면 추상적 느낌으로 작업하고 있다.

단순함 속에서 리듬을 찾고, 잔잔함에서 빛을 보고, 분리됨에서 융합을 느끼고, 색 면적에서 진한 감동과 감명을 받길 바랍니다.



©송재운\_Chersh the Time (빛&색을입히다)



©박용득\_물아일체 나도 그 풍광이고 싶다

물아일체 物我一體 나도 그 풍광이고 싶다

## 동해를 품은 독도

박용득(구미)

동해가 아름다운 것은 독도가 있기 때문이요, 내가 독도와 사랑에 빠진 이유는 우리 민족의 오랜 관심의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독도가 동해의 일부이기 보다는 동해를 품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독도를 대상으로 촬영해 보자는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박용득\_물아일체 나도 그 풍경이고 싶다

넓고 넓은 바다에 비하면 작은 점에 불과한 독도가 어떻게 동해를 품을 수 있겠는가.  
 하지만 내 안에 너 있고 너 안에 내가 있다는 말처럼 또 다른 차원의 세계에서는 불가사의한 일이 벌어진다. 마치 거대한 나무도 결국 작은 씨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팽창하는 우주의 핵심은 그 우주를 생각하는 내게 있는 것 아니겠는가?  
 내가 없으면 우주가 없고 우주가 없으면 나도 존재할 수 없다는 단순하지만 명료한 논리로 독도와 동해의 관계를 풀이하고 싶다.

동해와 독도는 대우주와 소우주의 동일한 성분인 것처럼 일체로 등장하여 내 사진 작업에 오브제가 되어 주었다. 독도가 없으면 동해가 존재할 수 없고 동해가 없다면 독도 또한 있을 수 없듯이 둘은 날 적부터 하나라고 생각했다. 그때부터 '동해 품은 독도'라는 제목을 미리 정해 놓은 후 독도 촬영에 나선 지가 벌써 5년째가 되었다. 독도를 방문할 때마다 나는 감동으로 전율했다. 어찌 저토록 신비로울 수 있을까? 계절마다 달라지는 저 풍경은 자연의 위대함을 입증하려는듯 웅장하면서도 섬세한 모습으로 내 카메라 앞에 포즈를 취해 주었다.

한반도에 살던 사람들은 일찌감치 홀로 우뚝 선 독도를 인지해 왔다. 울릉도 동남쪽으로 가물가물 바위섬이 날씨 맑은 날마다 그 형체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이들에게는 신기루처럼 나타나는 독도가 이글거리며 타



©박용득\_물아일체 나도 그 풍경이고 싶다

오르는 태양을 배경으로 서 있는 풍경은 이상향 같은 그림이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곳을 가보고 싶었을 것이고 결국 영토로 삼은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동해와 독도는 고구려의 광개토태왕릉비를 비롯하여 신증동국여지승과 같은 다양한 문헌 자료에서 등장하고 있다. 고지도 아국총도에서는 '동해', '서해', '남해'와 표기하고 독도를 그렸다. 동해 바다 한가운데 섬을 영토로 인식한 이들이 우리 선조였다는 사실이 자랑스럽기만 하다. 그 선조들의 후예로서 오늘 촬영하는 독도는 내게 국토를 인지하는 작업이자 송고한 개념이 들어 있는 대상이다. 일반 풍경을 대하는 사진 촬영과는 사뭇 다른 느낌의 특별한 작업일 수밖에 없다.

옛사람들은 독도를 지도에 그렸지만 나는 카메라로 독도를 그려낸다. 붉은 저녁놀이 벽옥빛 바다도 하얀 눈에 덮인 겨울도 독도와 동해가 다르면서도 하나 되어 조화를 이루기에 더 환상적이다. 계절마다 그 모습을 바꾸는 독도, 보면 볼수록 아름다운 섬, 삼대가 복을 쌓아야 접근할 수 있다는 이 섬은 이제 내게 가르침을 준다. 둘로 분리되지 말고 하나로 화합하라는 무언의 지혜를 선물한다.  
 둘이 완벽한 하나가 되었을 때 소우주와 대우주가 하나로 화했 때 비로써 완벽한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동해 품은 독도는 내게 속삭인다. 나는 관찰자가 아닌 그 풍경이고 싶다.

©박용득\_물아일체 나도 그 풍경이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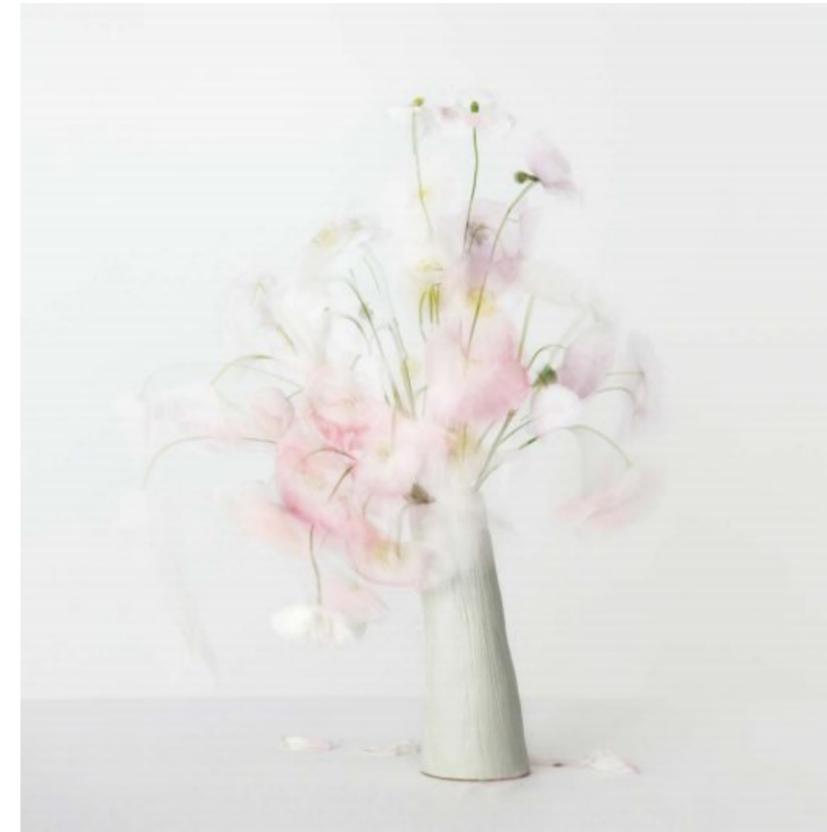


오늘 내가 죽는 것은 다시 살기 위함이다  
**꽃의 언어** The Language of Flowers

황여정(대전)

초록 풀밭에 양귀비는 한 송이만 있어도 주변을 압도했다.  
그러나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낙화한다. 화려함을 버리는  
이유는 생존과 잔존을 위한 작은 씨앗을 얻기 위함이다.

©황여정\_꽃의 언어 #1



©황여정\_꽃의 언어 #2



©황여정\_꽃의 언어 #7



©황여정\_꽃의 언어 #10



©황여정\_꽃의 언어 #17



©황여정\_꽃의 언어 #11

법정 스님은 '무소유'에서 "거기 화단 가득히 양귀비가 피어 있었다. 그것은 경이(驚異)였다. 그것은 하나의 발견(發見)이었다. 꽃이 그토록 아름다운 것인 줄은 그때까지 정말 알지 못했었다." 고 했다. 양귀비꽃은 누구나가 아름답다고 말한다. 그러나 피는 듯 곧 시들어 간다. 시간적 한계성이 아쉬워 더 빠져들게 한다. 작업한 이유이기도 하다. 세상에 영원(永遠)한 것은 없으며 시간의 흐름 속에 소멸된다. 하지만 꽃이 피고 지는 것은 욕망의 발현이자 실현이고, 내일을 기억하는 꽃의 소망을 이룬다.

빈 여백에 음표를 찍듯이 오브제로 공간을 배치한다. 절화하는 순간부터 시드는 속성에 긴장감이 올라온다. 꽃의 얼굴에는 표정이, 줄기에는 흐름결이 있다. 생장의 싸실과 시간의 날실로 유의미(有意味)한 공간을 채운다. 소외되는 존재 혹은 독특한 존재, 묻어가는 존재들을 무대 위에 연출해서 조화로움을 만들었다.

그들의 축제가 시작되었다. 정중동(靜中動)이다. 무반주 침묵 속에서 동선 없는 춤을 추고 있다. 시간의 축적으로 선율을 그리며 협화음과 불협화음을 채색한다. 꽃들은 미완성 교향곡을 완성으로 향하게 하고, 겹세로줄을 그었다.

꽃의 생명력은 시간이 주는 유한함에 소멸되고 만다. 특히 양귀비는 하루를 못 넘기고 낙화한다. 활짝 피어나는 듯 이탈세포(離脫細胞)로 꽃잎을 버려버린다. 양귀비에게는 생존과 잔존을 위한 몸짓이다. 낙화가 있기에 씨앗이 있고, 소중한 것을 얻으려 함이다. 꽃은 결코 시들지 않는다. 꽃은 사유(思惟)하듯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다.

# 이자벨 샤피 Vivant, Le sacre du corps 신성한 몸

글·사진제공-김재훈(전시 컨설턴트, 프린트 디렉터)



전시 전경. Space22 제공

개관 10주년을 맞은 사진미술공유공간 'Space22'는 2023년 12월 19일 프랑스 사진가 '이자벨 샤피 (Isabelle Chapuis)' 의 <Vivant, Le sacre du corps / 신성한 몸> 사진전을 개최했다. 이 전시는 2023 대구사진비엔날레의 주제전시에서 '살아있는 것, 몸의 제전'이라는 작품으로 국내에 처음 소개되었던 이사벨 샤피의 개인 작품전시이다. 2024년 1월 5일까지 진행된 이 전시에서 <Space22>는 몸을 통해 경험되어지는 내면의 정신과 신체 사이에 교차하는 의식을 주제로 20여 점의 <Vivant, Le sacre du corps> 시리즈의 포트리이트 사진과 식물

예술가 'Duy Anh Nhan Duc'과 협업한 <Ailées> 시리즈의 작품을 새롭게 보여주며, 사진을 매개로 예술창작과 심리치료,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사벨 샤피가 신체적 인지로 정립되어지는 정체성과 우리의 정신과 신체 사이의 유대를 주목하게 하고 몸이 지닌 신체적 기호들이 어떻게 창작의 주제가 될 수 있는지 제시한다고 소개했다. 또한 누군가에 의해 특정되거나 다른 개체가 아닌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다른 형태의 생명체와 만나는 시각적 여행으로 관객을 초대하고, 이 전시를 통해 신체적 인지가 어떻게 의식 안에서 작동

▼ 제 몸에는 스트레치의 흔적이 네 개 있습니다. 언제 생겼는지 알 수 없지만 그것이 몸에서 늘어나거나 줄어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제 몸을 받아들이고 있고 사람들이 제 탄살을 아름답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에 더욱 자신감을 갖어요. 저는 민감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있는 그대로의 제 몸을 좋아합니다.



Vivant, Le sacre du corps, Pierre



Vivant, Le sacre du corps, Natalie

▲ 제 머리는 1미터 30센티미터 길이에 무릎까지 내려옵니다. 열두 살 때까지는 단발로 자랐고 열여덟 살이 되자 엉덩이까지 내려왔고 그 후로 계속 길러왔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머리를 자르러 가면 울곤 했어요. 긴 머리를 한 여자들을 보며 나를 꿈꾸게 했죠. 저에게 긴 머리는 여성스러움의 상징이자 자부심입니다. 전 짧은 머리의 제 모습을 상상할 수 없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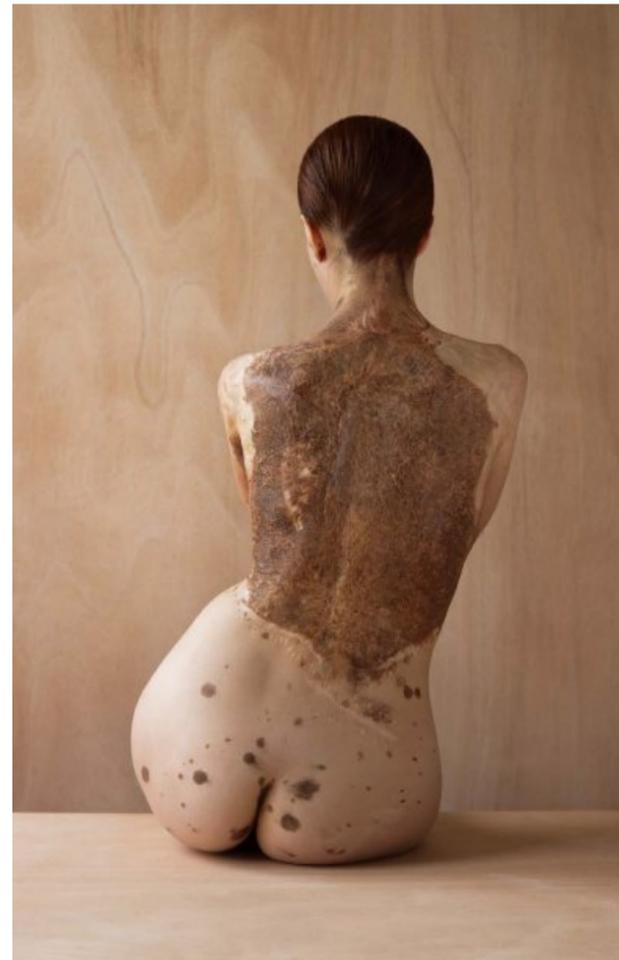
전시 전경. Space22 제공

하는지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몸을 통해 무엇을 소유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고 전했다.

저의 작업은 예술의 범주에서부터 치유의 범주까지를 함께 아우릅니다. 이 두 가지 범주들은 공통적으로 몸과의 연관성을 지닙니다. 예술가이면서 테라피스트이기도 한 저의 중심 주제는 몸의 기억입니다. 우리의 몸이 경험의 청사진들을 담는 방식, 힘을 돋우는 만큼 심한 정신적 충격이기도 한 그런 방식 말이죠. <신성한 몸>연작은 지난 7년에 걸쳐 작업한 연작의 일부로 이 작품은 예술과 치유라는 두 갈래의 실천이 만나는 교차점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활용하게 된 최초의 계기는 보여주하고자 하는 장면을 기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드로잉과 회화, 동영상을 비롯한 다양한 매체를 접하고 활용해 왔는데, 정확도와 예민함을 기준으로 할 때, 사진이 제공하는 정지된 순간을 따라갈 매체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정지된 순간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정제된 무언가가 제 마음을 움직였죠. 들숨과 날숨 사이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공간이나 시간의 경과처럼 느껴지는 것 말입니다. 최근 저는 제게 상담을 받는 이들과 함께하

는 치유활동의 측면에서, 자아탐색의 도구로 사진을 활용합니다. 이때 사진은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쓰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자기 몸을 제대로 소유하게 돕습니다. 자기 회복의 도구가 되어주는 것이죠. 이처럼 사진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기록할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많은 측면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냅 사진들을 탐구하는 행위는 단어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내면에 대한 깊은 통찰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사진은 우리를 직접적으로 감정의 영역에 데려가 줍니다. 그것이 억압되어 있다고 할지라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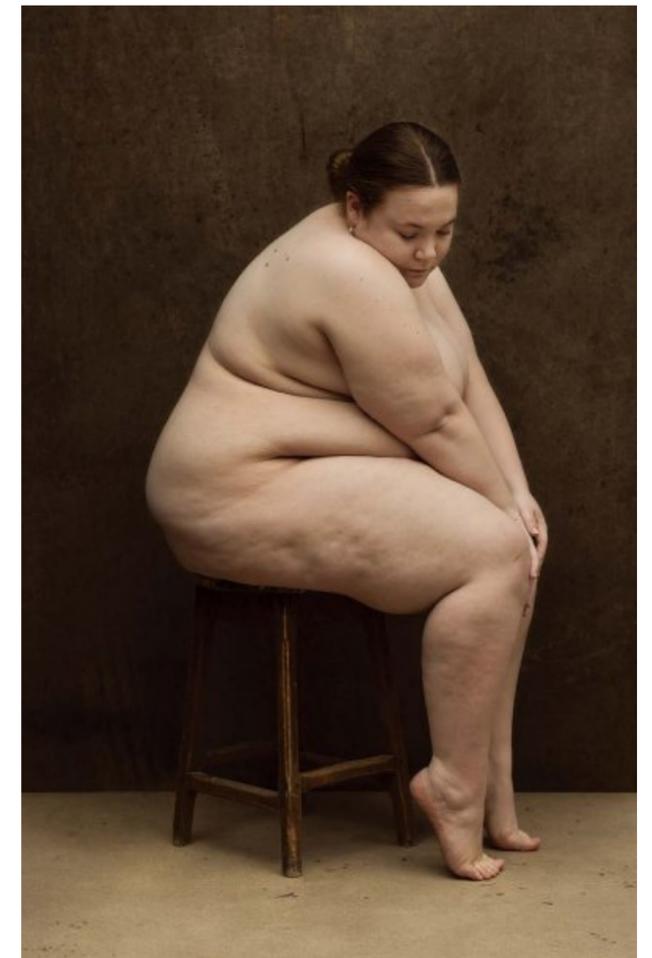
저는 사진을 일종의 도구로 보지만 사진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엄청난 힘을 가진 도구입니다. 사진의 힘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무언가를 서포트할 수도 있고, 반대로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존재에 힘을 실어줄 수도 있지만 그것에 상처를 입힐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지의 생산자로서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는 합니다. 현재 제 작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제 자신이 스스로의 몸과의 관계를 탐구하는 다양한 방식입니다. 여기서 현재라는 표현을 쓴 까닭은 작업에 중요하게 작용했던 요인들이 지난 17년간 지속적으로



Vivant, Le sacre du corps, Agathe

▲ 저는 선천성 희귀병인 거대 모반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등에 아주 큰 반점이 있어요, 어깨와 가슴에도 점이 많았어요. 반점이 여러 겹의 피부에 영향을 미쳐서 어렸을 때부터 병원에 다니며 수술을 스무 번 정도 받았어요. 검은 피부를 제거한 후 허벅지에서 피부를 떼어내 어깨와 등에 이식하는 수술이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사진을 찍은 것은 수술 후 의사의 진료실에서 얼마나 잘 회복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찍은 것이었는데, 잔인하면서도 굴욕적인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중략- 오랫동안 저는 다름의 힘을 키웠어요. 저는 제 모반을 숨긴 채 '평범한' 사람으로 역할을 연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피부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저에게 삶을 살아가기 위한 엄청난 힘을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 제 몸은 마치 어린아이가 만든 찰흙의 모형처럼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 피부는 햇볕에 잘 타고, 짙은 회색의 눈, 불가사리처럼 생긴 손, 등에는 별자리 모양의 점들이 있습니다. -중략- 부정하면 할수록 제 몸은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저를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려 칼로리를 계산하고 결국은 아예 먹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삶을 거부하는 방식이었고, 존재할 권리를 부정하는 것과 같은 병적인 행위였습니다. -중략- 또 한 번의 다이어트 기록을 경신한 후, 저는 몸과의 싸움을 멈춰야 한다는 것과 몸이 붓는 것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부정하는 것을 멈추고 제 몸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제 몸을 자연스럽게 바라보게 되었어요. 내 몸과의 관계가 개선된 순간부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훨씬 더 편안해지고 난생 처음으로 내 몸을 있는 그대로 느끼게 되었어요. 이제는 제 몸을 사랑해요. 변한 것은 몸이 아니라 내 몸과의 관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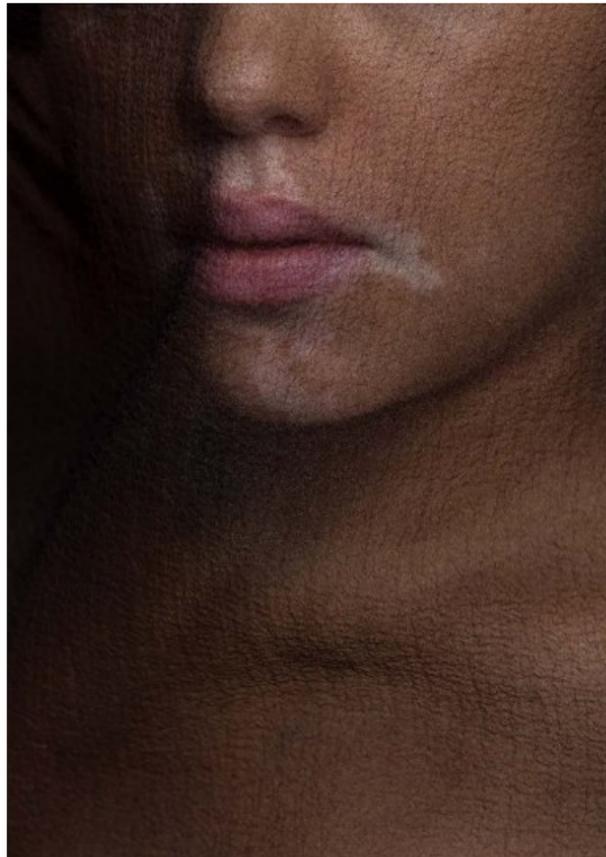


Vivant, Le sacre du corps, Nina



Vivant, Le sacre du corps, Tysha

▲ 사춘기시절에 제 몸을 인정하는 것이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화장을 하고 긴 소매의 옷들을 입었습니다. 10년이 지나서야 마침내 제 몸을 받아들이고 다시 태어났어요. 지금은 비정형 모델로 일하고 있습니다. 백반증은 등에서 시작해서 배에 조금씩 생기고 얼굴에까지 퍼졌는데, 그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저는 그것을 위장하는 방법으로 화장을 완전히 바꿔야 했죠. 친구들도 화장을 하지 않으면 저를 알아볼 수 없었어요. - 종략- 제가 백반증을 받아들이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백반증은 제 자신감을 키우고 더 강하고 적극적인 사람이 되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세상과 조화를 이루는 데도 도움이 되죠.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이대로의 모습을 사랑하고 저 자신의 모습으로 살고 싶어요.



Vivant, Le sacre du corps, Jade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저의 주요 관심사는 신체의 재현입니다. 스스로의 차원에서 육체성에 대한 깊은 탐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러한 경험을 선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 신체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체를 사원과도 같은 것으로 보며, 그 문을 통과할 때 우리를 능가하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진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중 중시하는 하나는 삶의 다른 양상들이 연결되는 모습입니다. 일체감, 통일감, 소속감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처럼 각기 다른 존재양식들이 서로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흠이 우리 신체의 일부인 것처럼 우리 신체도 흠의 일부라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 이자벨 샤푸(대구사진비엔날레 유튜브채널 작가 인터뷰)

말도 많고 일도 많았던 어려운 한 해가 지나가고, 다시 어려울 수도 있는 한 해가 시작되었다. 옛날도 아니었던 수년 전까지만 해도 정보를 찾는 능력만 있어도 되는 세상이었었는데, 이제는 세상에 정보가 넘쳐서 노력하지 않아도 눈에 항상 치일 정도이기에, 제대로 된 정확한 정보를 골라내는 능력이 무척이나 중요한 때이다. 우리 모두 작가의 마음으로, 뿌리 깊은 나무처럼, 주변에 휘둘리지 말고 넓은 시야와 깊은 통찰력으로 생활도 사진작업도 잘 해 나가기를 기원하며, 2024년이 영예로운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한다.

www.studioclub.co.kr

**구매상담**  
ID: 신지스튜디오클럽  
010-2253-2786

별칭인 사진이  
진짜이다

**SINJI**  
studioclub

**(주)신지스튜디오클럽**  
사진가를 위한 폐쇄형 인증제 쇼핑몰

포토프린터

**EPSON Canon**  
EXCEED YOUR VISION

미니, 배터리 휴대용, A4무한정품, A4포토복합기  
A3 전문가용 포토프린터, A2 ~ 64인치 대형

포토페이퍼, 정품잉크

**EPSON Canon SINJI**  
EXCEED YOUR VISION studioclub

대여 프로그램  
축제, 행사, 무상대여 / 02)790-1310

실적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지정 우수업체

전국 스튜디오 8,000여 개점

전국 예술학부 1,000여학과 남품

# 중간톤 천연 색상 살리는 묘사력 '탁월' 오브제를 활용한 카본프린트 프로세스

글, 사진제공\_김정현(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수, 본 협회 교육전문위원회 위원, 사진교육지도자)

예술을 구성하는 개체는 크게 주체(Subject)와 객체(Object)로 구분할 수 있다. 주체는 그 예술을 창조하고 실행하는 작가이며, 객체는 주체인 작가가 물리적이거나 정신적인 것을 막론하고 인지할 수 있는 사물이나 대상을 말한다. 이 두 개체가 내용과 형식이라는 틀 속에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예술 작품으로 탄생한다. 예술의 형태는 많은 세대를 거치면서 다양한 사조로 명멸을 거듭하였으며, 예술의 한 축이 되는 객체인 오브제는 예술 작품의 예술성과 의미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특히 현대적 오브제의 개념이 만들어지게 된 입체주의에서 시작해 다다이즘을 거쳐 초현실주의에 이르기까지 오브제는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이는 창작의 대상인 오브제가 갖는 본질적이고 한정된 의미와 기능에서 벗어나 새로운 형태의 의미로 확장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19세기에 탄생한 사진은 20세기 이전까지 회화에 종속된 매체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이유에는 사진이 표현하는 오브제가 작가의 상상력에 의한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고 단순한 대상의 복제품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사진과 오브제에 대한 접근방법이 크게 바뀌게 된다. 특히 20세기에 전개된 순수사진 운동과 초현실주의 사조의 영향을 받아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대상이 발견된 오브제 개념이 전개되면서 사진에 나타난 오브제의 개념이 새롭게 정립되었다. 21세기에 접어들어서는 오브제의 기능이 한층 더 다양한 방법으로 전개되었다. 특히 디지털 사진의 발전으로 인해 지시 대상을 직접 제작하거나 변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있는 실재의 재현이라는 사진의 근본적인 명제가 흔들리게 되었다. 이렇게 사진의 오브제는 시대의 변화와 요구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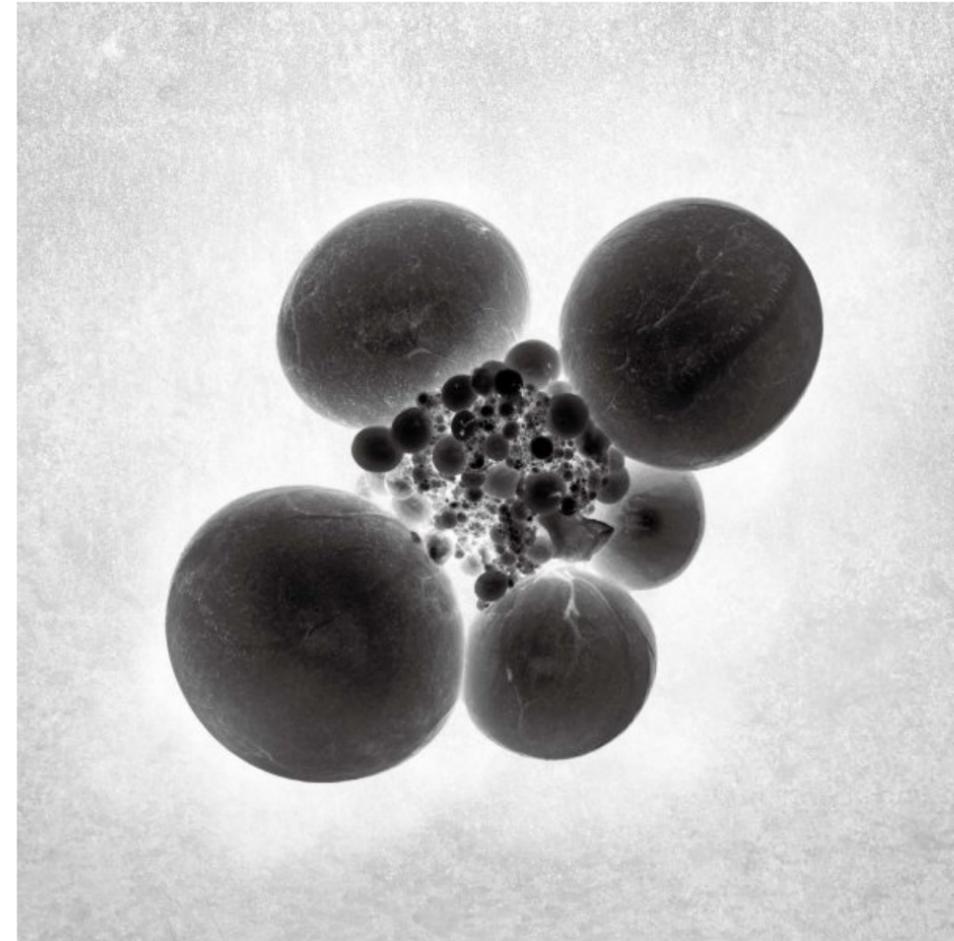
사진술이 발명된 이후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사진 제작 방법은 디지털 프린트 프로세스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디지털 프린트는 잉크나

토너 등의 착색제와 용지 및 코팅 재료 등의 매개물 조합으로 완성된다. 그리고 이 과정은 대부분 디지털화 된 입력 신호를 알고리즘화된 기계적 장치에 의해 출력하는 방법이다. 때문에 사진 제작 과정에 작가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방법은 매우 제한적이다. 이에 반해 19세기에 만들어진 고전프린트 프로세스들은 대부분 작가가 감광성을 갖는 약품과 매개물을 작가가 직접 만들어 사진을 완성할 수 있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

특히 카본프린트는 젤라틴에 수용성 색소를 첨가하여 만든 감광 티슈를 이용하여 사진을 완성할 수 있는 기능적 특수성을 갖고 있다.

연구자는 알을 대상으로 부활의 상징적 의미를 표현한 《부활》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시리즈는 생명과 부활을 상징하는 다양한 알을 촬영한 것으로, 촬영이 끝난 후 촬영에 사용된 알을 태워 남은 탄화물로 색소를 만들고 이를 카본프린트에 접목하여 사진으로 완성한 것이다. 이러한 사진 제작의 전반적인 행위는 부활이라는 대상인 알이 촬영의 대상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진 제작의 재료로 사용되어 부활하는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과정은 그동안 일반적으로 사용된 오브제의 한정적 기능을 벗어나는 것으로, 사진 제작에 있어 오브제의 기능적 특성을 재고할 수 있는 의미를 지닌다.

《부활》에서 알은 봄이나 풍요, 다산 등 생명을 포괄적으로 상징하고 있다. 겉모습은 생명과 무관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생명이 자리하고 있으며, 파란을 통해 생명을 탄생시킨다. 기독교적 입장에서 알은 새로운 생명의 기원인 부활의 의미와 연결된다. 로마 시대에 달걀은 마술적인 의미가 있어 죽은 이를 위한 깨문거리(副葬品)로 무덤에 넣기도 하였다. 이러한 관습에서 신자들은 그리스도가 영광스럽게 부활 한 돌무덤을 달걀에 비유하기도 하였다. 알 공예는 16세기 프랑스에서 부활절에 맞춰 탄생과 부활을 상징하는 알들을 만들면서 시작되었다. 부활절 달



©김정현, 부활 001, 45×45cm, carbon print,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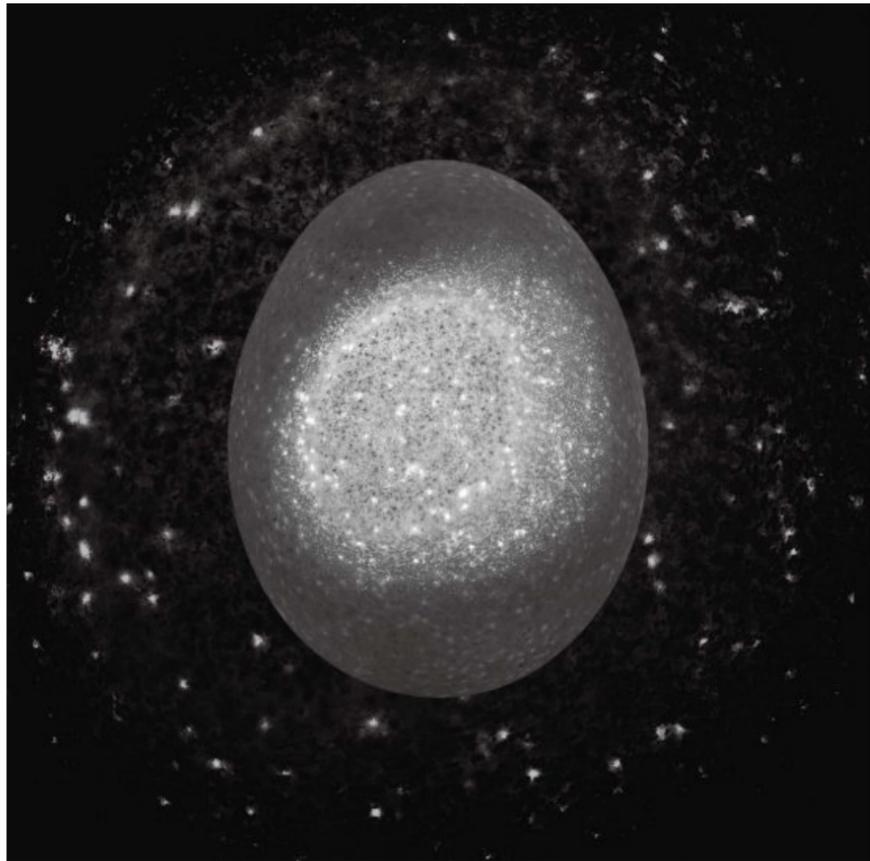
걍의 색은 '죽음을 쳐 이긴 새 삶'을 뜻하는 붉은색으로 만들어졌다. 부활절에 달걀을 주고받는 풍습은 17세기경 수도원에서 시작되었다. 사순절(四旬節)이라는 절기 동안 수도원에서는 절제(節制)나 보속(補贖)의 의미로 짐승의 고기나 생선, 달걀 등을 먹지 않고 빵과 채소만으로 금욕의 생활을 한다. 그리고 부활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면 처음으로 오믈렛이나 반숙된 달걀을 먹었다. 특히 이 시기에는 달걀이 매우 귀하여 부유층만이 먹을 수 있었지만, 이날만큼은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의미로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풍습화 되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풍습은 점차 달걀을 장식하게 되었으며 알 공예라는 하나의 예술 장르로 발전되게 되었다.

알 공예의 대표적인 인물은 피터 칼 파베르제 (Peter Carl Faberge)다. 그는 1846년 5월 30일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Saint Petersburg)에서 태어났으며, 1870년 그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회사를 경영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보석을 생산하는 단순한 작업장이었지만, 1872년 사업이 확장되기 시작했고 예술적인 작품 제작에 더 많은 관심을 두게 되었다. 작품 제작을 위한 연구를 통해 금속의 새로운 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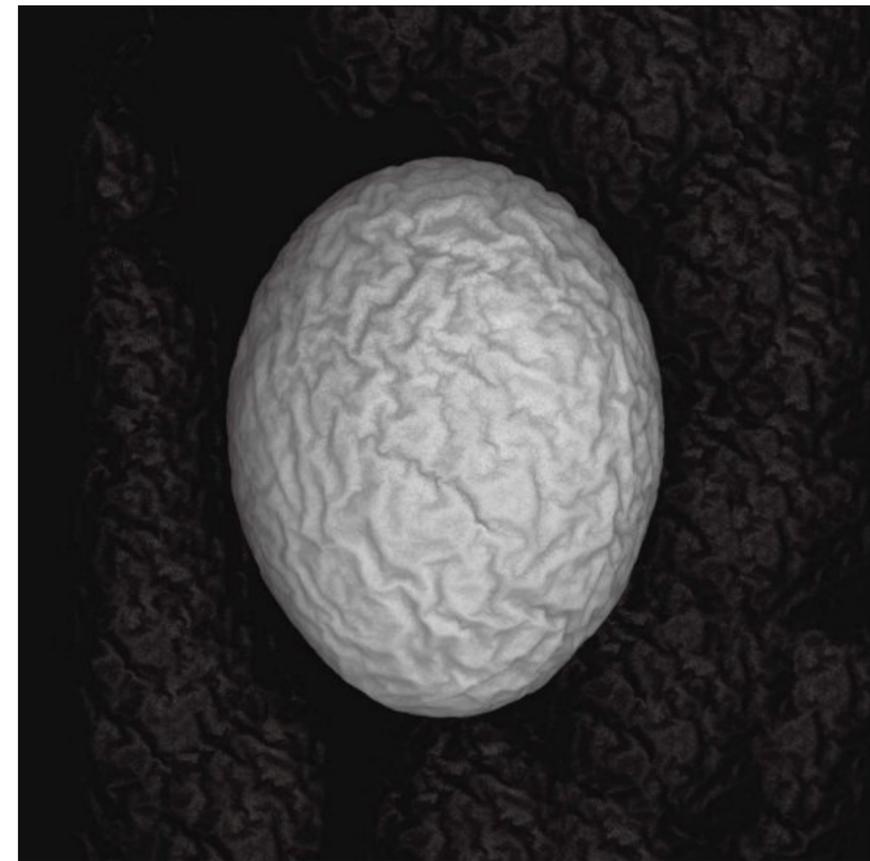
기술을 개발했으며, 귀중한 보석을 가공하는 기술을 독자적으로 보유하게 되었다. 그리고 1882년 모스크바에서 열린 러시아 예술산업전시회(All-Russia Exhibition)에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된다. 이러한 성공의 영향으로 1885년 차르 알렉산더 3세(Tsar Alexander III)로부터 그의 아내인 마리아 표도로브나(Maria Feodorovna) 황후에게 선물할 부활절 달걀을 주문 받게 된다. 이 작품들은 훗날 러시아를 대표하는 역사적인 작품으로 남게 된다.

《부활》에서 중요한 또다른 한가지는 촬영된 알을 태워 남은 재와 그 울음으로 이미지를 완성한다는 것이다. 태운다는 의미는 종교적으로 여러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무속신앙의 굿이나 동제(洞祭)등에 신령 앞에 비는 뜻으로 얇은 종이를 오려서 불을 붙여 공중으로 날리는 일을 소지(燒紙)라고 한다. 이러한 행위는 어떤 물체를 태워 신에게 바친다는 의미를 지닌다. 《부활》에서 태운다는 것은 부활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자 제의하는 의미를 지닌 행위기도 하다.

19세기 초 사진이 발명된 후 많은 사진가에 의해 다양한 방법의 프린



©김정현, 부활 069, 45x45cm, carbon print, 2019



©김정현, 부활 017, 45x45cm, carbon print, 2019

트 방법들이 고안되었다. 1855년 알퐁스 루이 푸아트뱅(Alphonse Louise Poitevin, 1819 ~ 1882)은 색다른 형태의 감광지를 창안하였다. 그것은 분말 형태의 그을음 색소를 중크롬산염과 젤라틴에 혼합하여 종이 위에 바른 다음 건조하여 감광지를 만드는 방법이었다. 이렇게 완성된 감광지 위에 네거티브필름을 밀착한 후 자외선에 노출하면 중크롬산염이 젤라틴을 경화시키게 되고, 노출된 자외선량의 비율에 따라 불 용해성이 된 젤라틴이 이미지로 표현되는 방법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중크롬산염 콜로이드에 색소를 혼합하여 이미지를 완성한 최초의 사례였다. 하지만 이 프로세스의 단점은 완성된 이미지의 색 대비가 너무 높아 블랙과 화이트에 편중되어 중간톤이 거의 사라지는 것이었다. 그 이유는 감광지가 자외선에 노출된 후 수세 과정에서 경화되지 않은 젤라틴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이었다. 노광 작업 과정 중 감광지의 가장 위층이 처음으로 노출 직후 경화되기 시작하면서 중간층의 노출을 방해할 뿐 아니라 맨 위층은 더욱 노출이 증가하기 때문이었다. 이후 버넷(C.J.Burnett)은 네거티브를 감광지 뒷면에서 노출 함으로 부분적인 개선을 이루기도 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계조가 풍부한 이미지를 만들기 어려웠

다. 이 같은 카본프린트 프로세스의 난제들에 대해 실용적으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1864년 조셉 윌슨 스완(Joseph Wilson Swan, 1828~1914)이 제시하였다. 그는 연구를 통해 젤라틴에 약간의 설탕을 섞으면 젤라틴이 건조하면서 부서지는 현상을 줄일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유리판 위에 젤라틴과 중크롬산염, 색소를 혼합하여 만든 감광 용액으로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도 함께 고안하였다. 1865년 그는 그동안의 연구를 바탕으로 젤라틴에 카본을 혼합하여 만든 카본티슈를 소개하였다. 이 티슈는 중크롬산염과 칼륨을 사용해 감광성을 얻을 수 있었다. 두 약품을 일정한 비율로 증류수에 희석한 다음 티슈에 바른 후 건조하여 완성하였다. 여기에 네거티브 필름을 밀착하여 자외선에 노광한 뒤 수세를 거쳐 이미지를 완성하는 방법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제작된 카본프린트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첫째, 카본프린트는 젤라틴에 색소를 혼합하여 완성한 것으로 사진의 색상을 매우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색소는 태양에서 발산되는 빛에 의해 반응하여 고유한 색의 성질을 점점 잃게

된다. 하지만 카본프린트는 순수한 그을음을 주재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색상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을음은 주로 검은색의 잉크 제조와 타이어 제조에도 사용되는데 오래된 타이어의 검은 색이 항상 유지되는 것은 그을음 색소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둘째, 이미지를 완성하는 젤라틴의 적층 두께를 달리하여 색상의 농도를 변화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진 프로세스의 색 표현은 점으로 구성된 색들의 간격에 의해 명암으로 표현된다. 하지만 카본프린트는 색상의 점 크기와 함께 이미지를 완성하는 젤라틴의 두께로 색의 농도를 결정할 수 있다.

셋째, 제작 방법에 있어 작업의 확장성이 매우 넓은 것이다. 카본프린트는 색소의 종류와 매개체의 다양성 그리고 젤라틴의 적층으로 인한 이미지의 질감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등 다양한 형태로 이미지 제작이 가능하다. 특히 카본프린트의 감광성질은 다른 사진 인화법과 다르게 직선 반응을 보여 블랙과 하이라이트를 분리해 표현하며, 섬세한 중간 톤을 얻을 수 있는 묘사력을 가진 특징이 있다.

넷째, 천연 색상으로 작품을 제작할 수 있다. 카본프린트는 색소와 젤라틴을 혼합하여 만든 감광지를 이용하여 이미지를 완성한다. 색소는 천연 색과 흑백의 색소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종이, 캔버스, 유리, 나무 등 젤라틴을 도포할 수 있는 대부분의 매개체 위에 이미지를 제작할 수 있다.

#### 카본프린트 제작 공정

1)사이징(Sizing paper) -> 2)티슈 제작(Making tissue) -> 3)네거티브필름 제작(Printing the negative film) -> 4)노광(Exposing the tissue) -> 5)종이에 티슈 붙이기(Mating the tissue to paper) -> 6)현상(Developing the print) -> 7)수세(Clearing the print and Final bath)순으로 진행된다.

자세한 제작 공정에 대해서는 다음호에 설명하도록 하겠다.

# 동서고금 휘어잡던 능력 어디갔나 용의 퇴진

글 사진제공\_최승언

해동육룡이 나르샤 일마다 천복이시니 고성이 동부하시니 불휘 기픈 남간 바라매 아니 뭇새, 꽃 도코 여름 하나니. 새미 기픈 므른 가마래 아니 그츨새, 내히 이러 바라래 가나니.

바다 동쪽 여섯 용이 나르시아 일마다 천복이 따르니 옛 성현의 말씀이 꼭 들어 맞는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아서 열매를 많이 맺고,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도 그치지 않아서 강물되어 바다로 간다.

세종시대에 간행한 용비어천가를 보면 해동 육룡을 세종대왕의 육대 조상으로 표현하여 조선 왕조가 용의 자손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태조 이성계의 조상은 하늘이 예비한 특별한 가계임을 강조하여 고려왕조를 무너뜨렸다. 그 역성혁명, 성공한 쿠데타에 정당성을 부여하려 간행한 것이 용비어천가다.

용의 자손이므로 오랫동안 번성하리라는 기원을 담고 있는 문헌이다. 이처럼 과거의 왕조는 용을 임금의 상징으로 여겼다.

그러므로 일반인들이 용 문장을 사용하는 것조차 금지되어 있었다. 요즘에는 조직폭력배들도 문신으로 사용하지만, 옛날에는 범접할 수 없는 위엄으로 백성을 지배한 신성한 존재였다.

지금도 민간에서는 용꿈을 꾸면 복권을 사서 재물복이 굴러들어올 것을 바라고 시험에 합격할 것으로 기대한다.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난 경우도 용꿈의 덕으로 돌리기도 한다.



서양의 형상화 한 용은 날개가 달려있다

용은 상서로운 존재로 여겨졌다. 존재하지 않는 상상속 동물이지만 동양에서는 여러 동물을 짜깁기해 표현했는데 한마디로 각종 동물의 몸체를 모아놓은 모양이다.

그 몸은 뱀의 형상이지만 메기의 수염, 낙타의 머리, 사슴의 뿔, 잉어의 비늘, 독수리의 발, 돼지의 코 등으로 완성된다.

그림으로 표현할 수는 있지만 눈으로 보이지 않는 상상의 존재가 인간의 삶에 무한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것은 아이러니다.

용이 인간의 삶을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 용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 길흉화복을 관장하거나 재앙을 불러 오는 신으로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용의 신은 인간으로부터 제사를 받아왔다. 하늘과 바다와 땅을 지배한 용은 신앙의 대상이었다. 바다에 살다가 하늘에 오르기도 하고 바닷길을 따라 사원에 드나든다고 믿기도 했다. 신라 문무왕도 자신이 죽어 동해의 용이 되어 나라를 지키겠다고 해중에 자신의 능을 만들라고 했다.

바다를 의지해 사는 사람들은 용왕에게 때에 따라 제사를 지내 안전을 빌고 풍어를 기원했다.

고기가 잡히지 않거나 바람이 불어 배가 뒤집히더라도 하면 용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거나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더욱 정성을 다해 용신을 모셨다. 동양뿐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용을 숭배한 풍습들이 존재한다. 잉카 제국의 태양제도 용과 관련이 있는 제전이다. 태양신이 하지에 내려올 때 피라미드 계단에 조각한 용의 몸체를 따라

빛이 대지로 흐르듯이 설계되었다. 이는 마치 용이 빛을 가지고 지상으로 내려오는 듯 보인다. 잉카의 피라미드를 건축한 이들이 용을 태양신으로 여겨 섬겼음을 알 수 있다.

민간의 제사를 받은 용은 풍년과 풍어를 선물했다. 적어도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어 정성들인 제물을 용에게 바쳐왔다. 제사를 받는 본체는 보이지 않는 이는 용신이었지만 용의 화신으로 세상에 나온 임금님도 역시 용의 대접을 받았다.

보이는 인간 세계의 임금을 위해 백성들이 세금을 바친 것도 임금을 용과 동일시했기 때문이다.

임금이 앉는 자리를 용상이라 했고 임금이 입는 옷을 용포라했으며 임금의 얼굴은 용안, 임금의 유전자를 용정이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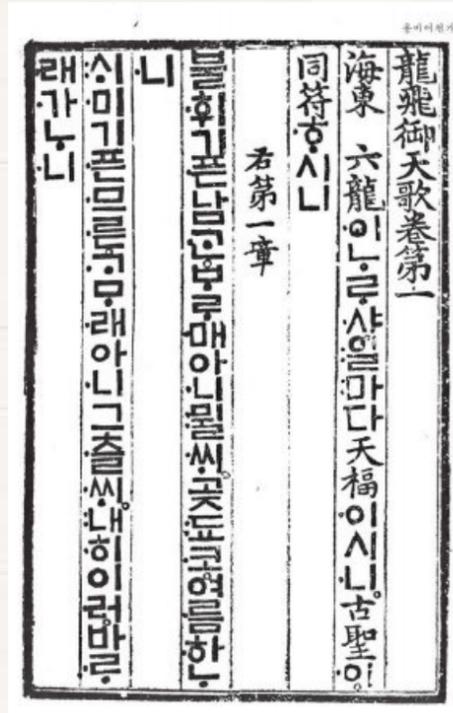
이 국가권력은 자신을 용으로 투영하고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받아 그 자금으로 백성을 통치하며 권력을 누렸다. 용과 임금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지배자로서 인간을 통치했던 셈이다.



동양의 용은 여러 동물들의 특징을 하나로 모아 형상화 했다.



용포를 입은 태조 이성계



용비어천가

서양의 기독교 문명은 용을 배척했다. 성경에는 분명하게 용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마귀이며 사탄이고 옛 뱀이라고 명시했다. 여기서 옛뱀이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그 아내 하와를 미혹해 선악과를 먹게 한 그 뱀이다. 그 뱀은 마귀이고 사탄이라고 한 것이다.

성경은 이 존재가 바로 선민을 미혹해 지배하여 만천하를 꺾는 자로 묘사하고 있어서 용은 하나님과 불구대천의 원수로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 옛뱀, 용은 그런 서양 문명권에서도 지혜롭게 살아남아 있다. 대표적인 증거는 가톨릭 성당 곳곳을 들어서 있는 용의 형상들이다.

베드로 성당에는 곳곳에 용의 형상을 조각해 두고 있다. 또 파리의 노트르담 성당의 지붕에도 처마에 용이 형상화되어 있다. 파리

뿐 아니라 일부 유럽 성당들에서 용이 지붕이나 성전 중심부에 표현되어 있다. 용이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서도 성전을 성공적으로 침투해 자리잡는 셈이다. 이처럼 용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 문명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주장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용의 힘은 약화되고 있다. 더는 세상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상징으로 용의 문장을 쓰지 않는다. 일부 무당들이 아직도 용의 힘을 부여 잡고 사람들의 점을 쳐 주고 아직도 용꿈을 꾸고 나서 복권을 사는 풍조가 남아있다. 용왕제를 지내는 축제나 제사도 있다. 그러나 인간의 생사여탈권을 갖던 그 용의 힘은 이제 쇠퇴하여 사라지는 듯하다.



바티칸 성전 천정에 보이는 용의 모습



성베드로 성당의 제단 천개의 네 기둥에 새긴 용의 형상



문무대왕 수증릉 동해의 용이 되어 국토를 수호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 꽃사진분과위원회 인천서 세미나 및 촬영회

지난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인천에서 개최된 제30대 꽃사진분과위원회 세미나 및 촬영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이번 행사는 꽃 사진 분야에서 활동 중인 다양한 분들이 모여 새로운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세미나에서는 본부 감사인 이덕만 감사가 HDR 촬영법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유익한 강의를 진행하였으며, 이온 강의 이후에는 50여 명의 회원들과 20여 명의 동아리 회원들이 함께 모여 실전 촬영에 참여하여 촬영에 대한 다양한 팁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여자들은 열정적으로 토론을 펼치고, 새로운 시각과 색감을 통한 작품들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이번 세미나를 통해 얻은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꽃사진분과위원회 회의와 송년모임이 이어졌다. 마지막 날에는 소래 습지생태공원에서의 촬영으로 행사를 종료하며, 참가자들은 새로운 해에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다시 뭉치를 다잡으며 정을 나누었다. 제30대 꽃사진분과위원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 창의적인 작품들을 선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제30대 꽃사진분과위원회 촬영회

### 제30대 누드사진분과위원회 실내누드 촬영회 실시

제30대 누드사진분과위원회(위원장 정지우)에서는 12월 8일 전북 전주 소재 백리향 스튜디오에서 실내조명 누드촬영회 및 운영위원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이날 전국에서 운영위원 및 위원 50여명이 참석한 실내 조명누드촬영회에서 정지우 위원장은 이승주 지도위원에게 위촉장 수여 후 인사말을 통해 "늘 야외에서 누드 촬영을 실시하였으나, 이번 실내 조명누드촬영회는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을 통한 인체의 아름다운 곡선미를 표현하고자 실내 조명누드촬영회를 가지게 되었다"고 강조하였다.

전주지부 유찬도 지부장은 축사를 통해 "역사와 전통이 있는 고장 전주를 찾아주신 누드사진분과위원 위원님들께 감사한다"고 인사를 하였다.

이날 촬영회는 2개 조로 편성하여 이승주 지도위원 지도하에 질서 정연하게 촬영하여 모두에게 만족도를 높게 되었고 아무런 불상사 없이 실내조명 누드촬영회를 마칠 수 있었다.

촬영을 마친 후 만찬을 하고 운영위원들과 좌담회를 갖고 2024년에도 년 2회 누드촬영회를 하기로 하였다.

글·사진 : 김정호(보도사진분과위원회 사무국장)



제30대 누드사진분과위원회 실내누드 촬영회

워싱턴지부 사진전 - 故 서대동 초대지부장 추모 묵념도



워싱턴지부 사진전

한국사진작가협회 워싱턴지부(지부장 황휘섭)의 제13회 사진전이 지난 11월 18일 개막됐다. 이날 저녁 센터빌 소재 협회 갤러리에에서 열린 개막 리셉션에는 황휘섭 회장, 이요한 사무국장과 함께 출품한 작가들이 참석, 자신들의 작품들을 관람객들에게 소개했다.

황휘섭 지부장은 "올해 정기전에는 협회 작가 70명 중 31명의 작가들이 각자 한 작품씩 출품했다"면서 "빛으로 그린 그림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사진은 워싱턴 지역을 포함해서 미국의 타 지역과 칠레 등 해외에서 촬영됐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특히 자신이 카메라 찍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은 전양수 작가의 '자화상', 바깥으로 나가는 계단을 찍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해 워싱턴 DC에서 촬영한 '수퍼 블루문 2023', 워싱턴한국전참전용사기념공원내 추모의 벽을 촬영한



©故서대동 - 향나무에게 묻는다

정창은 작가의 '아! 어찌 잊으리' 등의 작품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날 리셉션 참석자들은 협회를 창립하고 또 지난해 8월 13일 협회 갤러리까지 마련해 준 서대동 고문이 지난 9월 24일 별세한 것과 관련해 30초간 묵념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워싱턴 지부는 2008년 설립되어 故서대동님이 초대지부장을 역임하였다. 고인은 덴탈 랩을 현재 협회 갤러리 옆에 운영하고 있었는데 협회를 위해 5년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했다. 한국사진작가협회 워싱턴 지부는 먼 이국땅에서 협회의 명예를 드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사랑 심는 사진" "평화 심는 모임"의 모토 아래 개인의 성취를 넘어 사회에 기여하는 사진예술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국내 회원들과의 교류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미국을 방문하거나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이메일로 연락이 가능하다.

황휘섭 지부장 dvdhwang@yahoo.com 장성주 부지부장 scp0128@gmail.com



워싱턴지부 사진전



워싱턴지부 사진전

http://dongilframe.alltheway.kr/

동일액자

웹하드주소 www.webhard.co.kr  
 웹하드 ID: dongil6444 / PW: 6444  
 dongil6444@hanmail.net

- 하드락액자(광학필름) • 디아섹액자(아크릴)
- 메탈액자(알루미늄판) • 사진출력 및 기본수정

**"작품에 기술을 더한 액자와 사진출력"**  
 대한민국사진대전, 각종 전시회 제작

• 대표문의 010-6462-6266 • 다음 검색창에 **전주동일액자** 를 검색하세요

**회비납부 안내 사항**

안녕하십니까? 회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갑작스러운 사별에도 늘 회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을 기원드립니다.

2024년 본 협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원님들의 회비납부를 아래와 같이 요청드리오니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역시지회 및 지부 회비납부(회원님께서 소속된 지회, 지부에 납부)</li> <li>지회 · 지부 전용 계좌 : 농협은행 301-0758-2082-01</li> <li>- 서울 구지부에 소속되지 않은 본 협회소속 서울회원</li> <li>: 연회비 10만원 본회에 납부 (국민은행 031-25-0001-564)</li> <li>- 문의 및 회비담당 : 재무팀장 조윤숙(02-2855-3135)</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비가 납부되지 않을 경우</li> <li>: 월간 한국사진 발송 중단(회원님들의 회비 등으로 제작)</li> <li>: 광역시지회, 지부 운영규정에 의거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정지</li> <li>: 회원 인허규정 제5조 1항에 의거 2년 이상의 회비 미납시 정권</li> <li>- 정권 후 1년 이내에 회비 미납시 재적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li> </ul>
---	--

## 충남도지회 회원전 개전식 및 사진 문화상 수여

2023년 12월 2일(토) 오후 2시 충남 서산시 소재 서산문화회관에서 제24회 한국사협 충남도지회(지회장 한용상) 회원전 개전식 및 사진 문화상 시상식이 있었다.

이 행사에는 유수찬 이사장, 최차열 부이사장, 이완섭 서산시장, 서산시의회 의원과 역대 충남도지회장을 역임한 김석원의 5명의 전임 지회장들과 본협회 이막래 이사, 도내 이상영 이사, 이종석 이사, 박건태 이사, 김춘성 운영자문위원, 김원희 자문위원, 장한이 세종지회장, 도내 14개 지부장 전원과 각 지부 회원 등이 참석하여 200석 소공연장이 빈자리가 없는 만석을 이뤘다.

회원전 개전식에 앞서 시상식에서는 우수회원 표창에는 이사장상으로 오영실(서산), 이성호(예산)회원에게 유수찬 이사장이 표창하였으며, 충남도지회 회원전 우수작품상으로 조길호(홍성), 황종욱(계룡), 편선환(서산) 등이 최차열 수석 부이사장으로부터 수여 받았다. 또 충남도지회 사진문화상에는 최근태 공주지부장이 한용상 충남도지회장으로 부터 수여 받았다. 이어 2023 회원전 작품상으로 도내 각 지부의 12명이 한용상 충남도지회장으로 부터 각각 수여 받았다.

이날 유수찬 이사장은 축사에서 제30회 신임 집행부의 1년을 회고하며 사진 문화 진흥법 제정과 청소년 사진제 등을 설명하였으며, 다음 주 12월 6일부터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진행되는 '2023 제8회 대한민국 사진축전'에 충남도 회원들의 많은 참여를 독려했다.

시상식을 마치고 행사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바로 옆 전시실로 자리를 옮겨 도내 내빈과 14개 지부장들과 제24회 한국사협 충남도지회 회원전 개전식 테이프 커팅을 하였으며 회원전 사진 관람을 하고

참여회원들과 다과회를 함께 하였다.

24번째 이어온 한국사협 충남도지회 회원전은 매년 연말에 실시하며 개전식 당일 저녁 충청남도 사진인의 밤을 병행하며 실시해오고 있다. 이 행사는 도내회원간 폭넓은 교류를 통해 회원간의 단합과 충남도 사진에 술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당일 행사에 앞서 서산시 관내 맛집이나 식당에서는 충청남도 사진대전 초대작가회(회장 최차열)가 연말 모임을 갖고 유수찬 이사장과 함께 30여명의 충남사진대전 초대작가들과 같이 점심 식사를 하였다. 이사장은 초대작가들에게 협회 행사 중 청소년 사진제 초등학교 공모전 일화를 소개하고 협회 행사 등을 공유하며 초대작가들과 담소를 나누는 시간도 있었다.

글 : 최정규(홍보위원회 위원, 보령지부)



충남도지회 회원전 단체 기념사진



충남도지회 회원전 테이프 커팅식

## 발전기금적립 내역

(2023년 12월말 현재)

- 27대까지 적립금(2017.2월말) : 798,001,466
- 28대까지 적립금(2020.2월말) : 218,172,424
- 29대까지 적립금(2023.2월말) : 93,715,796
- 30대적립금(2023.3월~3월말) : 22,306,057
- 계: 1,132,195,743(a)

○입회자 발전기금 계 : 283,200,000 (2,832명/발전기금100,000/인)

- ① 2017년 계 : 36,600,000 ※특별회원2명 제외
- ② 2018년 계 : 53,200,000
- ③ 2019년 계 : 100,900,000
- ④ 2020년 계 : 15,700,000 ※특별회원3명 제외
- ⑤ 2021년 계 : 27,700,000
- ⑥ 2022년 계 : 32,200,000
- ⑦ 2023년 계 : 16,900,000
- ▷ 2023년03월(42명) : 4,200,000
- ▷ 2023년05월(25명) : 2,500,000

- ▷ 2023년07월(22명) : 2,200,000
- ▷ 2023년09월(39명) : 3,900,000
- ▷ 2023년11월(26명) : 2,600,000
- ▷ 2023년12월(15명) : 1,500,000

○기타 계 : 50,994,277

- ▷ 이자(보통예금) : 68,628(28대 누계) 81,623(29대 누계) 12,039(30대 누계)
- ▷ 이자(정기예금) : 24,403,796(28대 누계) 17,034,173(29대 누계) 5,394,018(30대 누계)
- ▷ 이자(임차보증금) : 4,000,000(29대 누계)

○운용 계 : 400,000,000(b)

- ▷ 사무실 이전 임차보증금 : 400,000,000(목동,한국예총 건물)
- 총 적립금 잔액 : 732,195,743(a-b)

# 신비의섬제주

## 사진작품 촬영

홈 : photojeju.com

### 제주도 촬영 안내

제주 촬영 오실 때 4명까지 삼각대 4대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장노출 지도 및 풍경 촬영 실시간 포인트 안내 오전과 오후  
 차량 : 쏘렌토 5인승 [ 1명~4명까지 차량 포함 ] 하루 20만원  
 차량 : 9인승 승합차 [ 5명~7명까지 차량 포함 ] 하루 30만원  
 ( 개인 스토리 작업 촬영 전문 개인전시 및 작품집 별도 문의)  
 제주도 풍경 촬영 가이드 권 기갑 연락처 : 010-3696-5202

## 어름 속의 세상

김승훈 개인전

전시일자 2024년 2월 21일(수) ~ 2월 25일(일)  
전시장소 가천대학교 비전타워 갤러리1실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342 비전타워B-1)  
전시오픈 2024년 2월 21일(수) PM.4시  
전시작가 김승훈



그 안에 빛과 색을 찾아 10년의 결실을 담아낸다.  
10년 중 겨울에서도 가장 추운 날에만 진행되는 짧은 시간의 창작활동  
사계 중 작업의 시간은 늘 겨울에만 진행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중략>

짧은 시간 속에서 얻는 또 다른 세상  
얼음 속의 세상은 또 다른 내 삶의 세상을 엿본다.

이젠 그동안 세월의 시간을 추억하며,  
내가 봐왔던 소중한 그 세상을 선보이고자 한다. <작가노트 중에서>



## 나의 향기 - 잊혀가는 전통 茶禮 문화

정금화 개인전

전시일자 2024년 2월 14일(수) ~ 2월 19일(월)  
전시장소 가천대학교 비전타워 갤러리 B1F  
전시오픈 2024년 2월 14일(수) PM.4시  
전시작가 정금화

다례(茶禮)를 공부하면서 차(茶)가 우리 고유의 문화라는 걸 알게 되었다. 차를 매  
개로 추사와 초의선사의 '동다송' 우정이나, 일본의 찻그릇은 백제의 도공이 만든  
작품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중략>

일상다반사 하셨을 선조들처럼 차를 통하여 몸과 마음을 다스리고 전통 다례 문화  
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자 찻그릇들과 다식들을 사진에 담아 보았다. 커피가  
대세인 서구화된 현실이지만 우리 전통 다례 문화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어 그 멋  
과 향이 우리에게 스며들면 좋겠다. 다선일미가 한국의 향으로 피어나 세계로 퍼  
져나가기를 바란다. <작가노트 중에서>



## Pearl of the East-Sri Lanka, 동양의 진주-스리랑카

박대병 개인전

전시일자 2024년 2월 21일(수) ~ 2월 26일(월)  
전시장소 인사동 마루갤러리 2F 제5전시실  
전시작가 박대병



인도양에 있는 아름다운 섬나라 스리랑카는 팔크  
해협을 사이에 두고 인도 반도의 남동해안과 마주  
보고 있으며, 옛 이름은 실론(Ceylon)이다. 과거 오  
랜 영국의 식민지 생활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는  
아직 유럽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으며 숨이 막힐 정  
도로 아름다운 지중해의 바다 풍경과 유네스코 세  
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고대도시와 "세계 8대 불  
가사의"라고 불리는 시기리아(Sigiriya) 바위 요새  
등 <중략>

스리랑카 전역은 희귀 새들의 천국으로 알려져 있  
고, 기차를 타고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나인아치 브  
리지(Nine Arches Bridge)등 아름다운 나라로 찬  
란히 빛나는 "동양의 진주"라고 불립니다. <작가노  
트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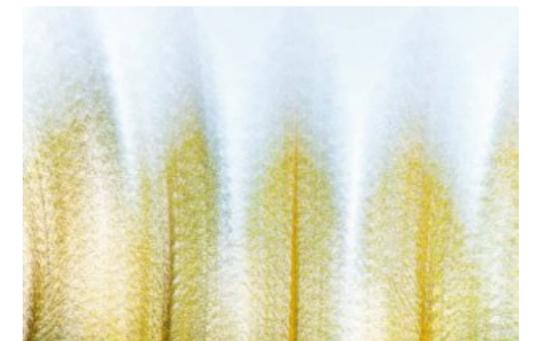
## 시(時)와 공(空)을 중첩하다

이기복 개인전

전시일자 2024년 1월 30일(화) ~ 2월 7일(수)  
전시장소 수원장안구민회관 노송갤러리 1층  
전시작가 이기복

사계절의 순환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일상생활에서  
렌즈를 통해 보이는  
자연의 아름답고 신비로운 모습을 담으며  
하루하루가 다르게 느껴지며 다가오는 자연에 늘 새로움을 느낀다. <중략>

시간의 흐름으로 다양한 자연의 얼굴과 상징을 보여주는 나무!  
그 나무의 아름다움을  
나만의 시선으로 해석해 보고자 한다. <작가노트 중에서>



## 蓮(연), 緣(연)

염미영 개인전



전시일시 2024년 1월 30일(화) ~ 2월 7일(수)  
전시장소 수원장안구민회관 노송갤러리 1층  
(관람시간 평일 오전9시~  
오후6시, 일요일 오전10시~오후5시)  
전시작가 염미영

십여 년 전부터 사진가를 꿈꾸며 살아온 우리 부부는  
35년의 교직생활을 과감히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사진작가로서의  
활동을 위해 사진에 대한 연구와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중략>

연꽃, 흔히 우리가 명명하는 큰 가시연!  
연이라는 꽃과 부부라는 삶은 핸드헬드 기법으로 촬영하면서 자연  
과 인간, 그리고 생애의 순리에 대한 깊은 의미를 부여해 준다.  
<작가노트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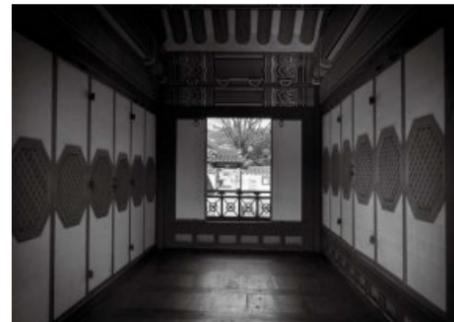


## 박제(剝製)된 시간

서우식 개인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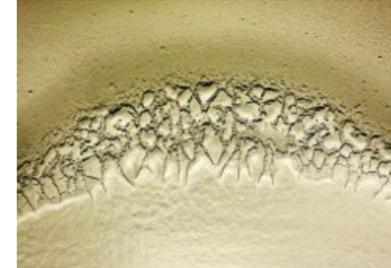
전시일시 2024년 2월 14일(수) ~ 2월 19일(월)  
전시장소 가천대학교 비전타워 갤러리 (B1층)  
전시오픈 2024년 2월 14일(수) PM.4시  
전시작가 서우식

이 계절에도 옛 궁을 거닐어 본다.  
오래전부터 틈이 나면 거닐던 곳이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정취가 다르다.  
“장락(長樂)”이라고 내걸린 퇴락한 현판을 보면서 그들과 이야기 해보고 싶다.  
오래 오래 즐겁고 행복했느냐고... <중략>  
멈춰진 시간과 쉽 없이 흐르는 시간의 괴리는 역사와 문명이라는 산물로 표현될  
뿐이다.  
오늘의 영화와 고난의 순간도 먼 훗날 퇴색해 버린 빈껍데기만 남은 박제된 시  
간 속에 남게 되겠구나. <작가노트 중에서>



## 무늬의 시간

전문희 개인전



전시일시 2024년 2월 21일(수) ~ 2월 25일(일)  
전시장소 가천대학교 비전타워전시실 B1F, 제2전시관  
전시오픈 2024년 2월21일(수) 오후4시  
전시작가 전문희

즐거운 한 때가 떠오를 때면 오롯이 나의 시간이 된다. 자연이 그려낸 이미지를  
발견했고, 유년의 추억과 마주하곤 했다. 눈이 온 것 같기도 하고 언덕에서 뛰  
어 놀기도 하고 상상의 나래를 펼친다. 마법처럼 이끌렸던 형상들이 그저 좋았  
고, 앵글로 담았던 시간들이다.  
물이 오르고 쏟아지고 넘실거리며 소리내었고 밀물과 썰물로 남긴 흔적을 보며  
바람에도 설레었다. 자유로운 패턴들을 발견하고 기록하기를 거듭했던 열정의  
순간들이 모였다. 발견의 순간을 '무늬의 시간'으로 꺼내어 본다.  
<작가노트 중에서>



## 상주감과 꽃감의四季(사계)

김영훈 개인전

전시일시 2024년 1월 12일(금) ~ 1월 14일(일)  
상주꽃감공원 전시 ~ 9월 30일까지  
전시장소 상주시 꽃감축제전시장(경북 상주시 만산동 686)  
전시작가 김영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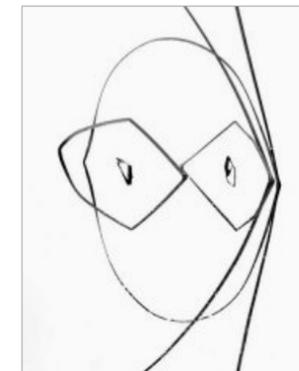
연두색 감잎이 피는 4월을 지나 5월이면 집뒤 장독대 옆 감나무에는 감꽃이 만발  
한다. 떨어진 감꽃을 먹어도 보고, 목걸이와 반지도 만들어 보면서 여름 지나 가  
을엔 온 마을과 온 들녘엔 주홍색 감으로 바다를 이룬다. <중략>  
감과 꽃감을 주제로 한 사계절 풍경 등 작품 80여 점이 전시된다. 사진전으로는  
흔치 않은 주제로 10여 년에 걸친 작가의 집념이 느껴진다. <작가노트 중에서>



## 선이 그린 형상

이영섭 개인전

전시일시 2023년 11월 24일(금) ~ 2024년 1월 25일(목)  
전시장소 시에나 Gallery Cafe  
전시작가 이영섭



함축된 시간의 흔적 위에 그려 놓은 자연의 형상은 땅의 기운 받아 생명을 움트고...  
물 흐르듯 따사로운 햇살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중략>  
자연의 형상은 닮은 꼴이다.  
그렇게 스쳐지나 듯 찰나의 미학은 내 프레임에 정착되고 있었다. <작가노트 중에서>

제 61회

# 한국사진작가협회 전국회원작품 시상전

접수마감 2024년 1월 17일(수) (도착분)

## 작품내용

8"×10"(자유작)

## 출 품 수

1인 2점 이내

## 참가자격

2023년 12월 31일 기준 협회 정·준회원

## 시 상

전국회원작품시상전 운영규정 제10조에 의거 우수작품상 수상자 선정

① 출품인수가 1,000명 미만인 경우에는 10명을 선정

② 출품인수가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출품인수의 1.5%를 선정

## 접수기간

2023년 12월 1일 ~ 2024년 1월 17일 (도착분)

## 출 품 료

1인당 40,000원 (최고급 작품집 증정) - 작품집은 소속 지회·지부로 발송

## 접 수 처

07995)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225(목동, 예술인회관) 1701호 한국사진작가협회

## 파일접수

이메일 koreapask@daum.net

※ 작품접수 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소속한 지회·지부를 통해 일괄 접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한 경우 개별접수도 가능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전화문의

02-2655-3131~3

## 출품요령

작품 뒷면에 작품명, 회원명, 지회·지부명, 주소, 연락처, E-mail을 필히 기재 후 부착하여 제출 할 것

## 특 전

수상자는 2024년 PASK AWARDS에서 시상하고 대한민국사진대전 수상점수 2점 부여, 수상작품은 월간 한국사진에 작품 게재

(\*대한민국사진대전 수상점수는 다음 대회 부터 1점으로 하향)

## 기타사항

- 작품은 발표, 미발표 작품으로 구분하여 접수하며 수상작은 미발표작에 한하여 선정함
- 발표작을 미발표작으로 기재하여 선정이 될 경우 상권을 취소하며 문제작으로 분류 조치함
- 파일로 접수하는 경우 작품집에는 수록되나 우수작품상 심사에는 미포함
- 작품 접수와 동시에 출품자명으로 출품료를 송금하여야 하며 입금되지 않은 작품은 회원 작품집에 수록되지 않음

※ 입금계좌번호 : 국민은행 878301-01-290242 예금주:(사)한국사진작가협회

# 2024 제38회 창원전국 사진공모전

CHANGWON NATIONAL PHOTO CONTEST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창원지부에서는 고향의 봄 축제 일환으로 제38회 전국사진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개최 하오니 사진애호가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내주신 작품은 하나하나 소중하게, 공정한 공개 심사로 하겠습니다.

**작품내용** 자유작 (유사작 및 합성사진으로 판명될 시 취소함)

**심사일시** 2024년 3월 24일 (일) 오후1시

**응모자격** 전국사진 애호가

**심사장소** 창원문화원 지하2층 공개 심사

**작품규격** 11 "x 14" 사진 (흑백 또는 칼라) 4점 이내

**심사발표** 2024년 3월 25일 이후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및 사협 창원지부 홈페이지 게재 (www.paskcw.net)

**출품사항** 작품 뒷면에 성명, 제목, 도로명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기재

**전시일시** 2024년 4월 16일 ~ 4월 22일

**응모기간** 2024년 3월 22일 (금) 도착분

**전시장소** 성산아트홀 제1전시장

**접 수 료** 1인당 2만원

**시 상 식** 2024년 4월 17일 (수) 오후 6시 30분  
성산아트홀 제1전시장

**접 수 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239번길 19-22 (용호동,창원문화원) 4층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창원지부 (우 51431) T. (055)283-1014  
지부장 010-3561-4772 / 사무국장 010-2845-0414

## 시/상/내/역

금상 1명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상장 및 상금 100만원  
은상 2명 : 한국예총 창원지부장 상장 및 상금 각30만원  
동상 3명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창원지부장 상장 및 상금 각10만원

가작 5명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창원지부장 상장 및 부상  
장려 5명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창원지부장 상장  
입 선 : 총 출품자의 20%이내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창원지부장 상장

## 기/타/사/항

- 저작권/저작물 이용 : 입상·입선작품의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있으며, 주최·후원측은 수상작에 한해 향후 5년간 복제·배포·전시·공중송신·도서출판 등 공익사업적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있음.
- 유의사항 : - 동일작품 및 유사작품으로 판명될 경우 수상이 취소되며 회원은 징계, 비회원은 7년간 시험입회유보, 초상권은 출품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 입상자는 시상식에 필히 참석, 불참시 상금·부상은 불우이웃돕기 기탁합니다. (대리 수상 가능)  
- 컴퓨터그래픽, 지나친 색상 조정은 입상 취소됩니다.
- 특별사항 : 작품집을 출품자 전원에게 보내 드립니다. / 사협 입회 접수 있음.
- 작품반출 : 낙선작은 전시 종료 후 개별 반송함

주최 : 한국사진작가협회 창원지부

후원 : 창원특례시, 한국예총 창원지부, 한국사진작가협회, 한국사진작가협회 경상남도지회, Canon 캐논 창원점, 서울이비인후과

# 제40회 제천전국사진공모전

접수마감 : 2024년 2월 13일(화)소인유효

## ● 응모요령

- 출품자격 : 전국사진애호가
- 작품내용 : 미발표 자유작
- 작품규격 : 11 x 14인치 컬러 및 흑백
- 출품료 : 1인당 20,000 원
- 출품수 : 1인당 4 점 이내
- 접수기간 : 2024년 2월 13일(화)소인 유효
- 접수처 : 우 ) 27164 충북 제천시 제천우체국 사서함 36호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제천지부  
지부장 : 010-3454-0102 사무국장 : 010-2667-2107
- 출품요령 작품 뒷면에 성명.작품명.우편번호.주소.전화번호를 기입한 출품표

## ● 시상 및 심사.전시

- 심사일시 : 2023년 2월 17일
- 심사장소 : 추후결정 / 심사방법 : 공개심사
- 심사발표 : 2024년 2월 19일(월)한국사진작가협회 홈페이지
- 전시 및 시상 : 3월 28일 ~ 4월 1일 의림지역사박물관(예정)
- 작품반출 : 작품 반출은 하지 않습니다.

## ● 시상내역

- 금상 1 점 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상장 및 상금 1,000,000 원
- 은상 2 점 : 제천시장 상장 및 상금 각 500,000 원
- 동상 3 점 : 제천시의회 의장 상장 및 상금 각 200,000 원
- 가작 5 점 : 한국예총 제천지회장 상장
- 장려 5 점 : 한국사협 제천지부장 상장
- 입선 : 한국사협 제천지부장 상장 (총 출품작 수의 20% 이내 -입상작 포함 )
- 상금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수상자 본인이 부담함 (계좌이체 시 공제후 지급 )

## ● 기타(유의)사항

- ① 입상 및 입선작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접수 인정함.
- ② 동일작품이나 유사작으로 판명시 낙선 및 상권이 취소됨은 물론 회원은 징계, 비회원은 7년간 입회 자격이 유보됨.
- ③ 금.은.동 수상작은 시상식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함.
- ④ 입상.입선 작품의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있으며, 주최측은 수상자에 한하여 향후 5년간 복제, 배포, 전시, 공중 수신에 사용할 수 있음.
- ⑤ 입상(선) 작품은 출품 파일을 7일안에 제출해야함.(미제출시 상권취소)  
(이메일 : otterkang@naver.com )
- ⑥ 출품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음.
- ⑦ 출품작의 저작권, 지적재산권, 초상권 등의 문제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은 출품자 본인에게 있음.
- ⑧ 작품집과 상장은 시상식 후 개별발송됨.

- 주최/주관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제천지부
- 후원 : 제천시.제천시의회.제천예총.제천문화재단.(사)한국사진작가협회